



원광대학교 · 한중관계연구원

HK+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CENTER FOR NORTHEAST ASIAN HUMANITIES & SOCIAL SCIENCE

동북아로 路

Center for Northeast Asian Humanities & Social Science Magazine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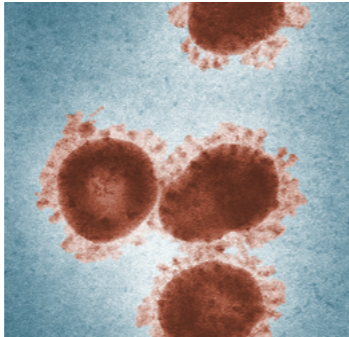
VOL. 7



CONTENTS



동북아 이슈



기획특집 : 생활세계의 위기



사진으로 만나는 동북아

아베 총리 총격 사건,일본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밑거름이 될 것인가?

아베는 일본국민이 거국적으로 일어난 60년 안보투쟁에도 불구하고 미일안보체제를 성립시키고 자주적인 개헌을 주장한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1896-1987)의 외손자로 처음부터 평화헌법 제9조의 개정을 정처적인 염원으로 삼았던 인물이다.

범지구적 위기들과 생활세계 개념의 전환: 비인간존재들과 함께 하는 생활세계

지금의 이 치명적인 기후변화는 인류가 지구의 일상적인 변화 패턴을 인간중심으로 변화시켜온 데 따른 결과이다. 그렇지만 지금 기후변화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야기한 변화에 다른 비인간 존재들과 시스템들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을 통해 영국의 시선에서 본 한국전쟁

영국 임페리얼 전쟁 박물관(Imperial War Museum)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전쟁 관련 사진을 살펴보면서, 영국의 한국전쟁 참전 과정과 활약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한다.

원광대학교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원광대학교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는 동북아의 갈등과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지역적 협력 방안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역사, 철학, 종교, 문화, 문학, 사회·정치·경제 등 인문사회과학 제반 분야의 융합연구를 수행하고,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도시들과 점이지대를 연결하는 대안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나아가 동북아의 제반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확장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인식공동체로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나가기 위한 지역적 관점과 공감대, 즉 동북아시아다이멘션(North East Asian Dimension)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이 출판물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사업임.(NRF-2017S1A6A3A02079082)



COVER STORY

한국·중국·일본·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의 문양·이미지를 이어, 동북아 공동체가 서로 맞닿아 있는 길(路)을 표현하였다.

동북아로 Vol. 7

발행일 2022년 9월 30일
인쇄일 2022년 9월 28일
발행처 원광대학교 HK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발행인 김정현
편집위원 김현주, 박성호
주소 54538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3층
전화 (063)850-7220~1
홈페이지 http://www.nead.or.kr
디자인 movisual

동북아 이슈

- 04 이상 기후로 인한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_ 조정원
- 08 아베 총리 총격 사건, 일본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밑거름이 될 것인가? _ 유지아
- 12 항일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_ 이은홍

파워 인터뷰

- 16 류코쿠대학 <안중근동양평화센터> 창설자 이수임 교수 인터뷰 _ 조성한
- 24 통일운동가 최재영 대표 인터뷰 _ 조성한

기획특집: 생활세계의 위기

- 32 범지구적 위기들과 생활세계 개념의 전환: 비인간존재들과 함께 하는 생활세계 _ 박일준
- 36 장제스(蔣介石)와 일본(2) 위기의 장제스, 그의 일본 망명생활 _ 김영신
- 40 종교의 위기, 종교라는 위기 _ 한승훈
- 44 반증감정을 부추기는 중국의 한국전쟁 기억과 대중서사 방식의 문제점 _ 한담

이야기로 만나는 동북아

- 48 근대중국에서의 과학과 현학 논쟁, 지금은? _ 김현주
- 52 1930년대 일본은 왜 군국주의와 침략으로 기울었을까 _ 윤현명
- 56 국제도시 상하이의 이야기: 상하이 도시 공간 속의 한국독립운동(4) _ 김주용

전북의 문화

- 60 지평선을 넘어가는 계절을 마주하다(1) 김제시의 봄과 여름 _ 박성호

사진으로 만나는 동북아

- 64 사진을 통해 영국의 시선에서 본 한국전쟁 _ 권의석

동북아로 새소식

연구단 발자취

이상 기후로 인한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22년 8월 중국 쓰촨성, 충칭의 폭염, 가뭄과 전력난을 중심으로

조정원

원광대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최근 인류에게 직면한 과제들 중에서 기후변화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예상치 못한 폭우, 가뭄과 폭염 등의 이상 기후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와 전력공급의 어려움에 따른 경제 활동과 일상 생활의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정부와 민간에게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2022년 8월 중국 서남부의 쓰촨성(四川省)과 충칭(重庆)은 예상하지 못한 폭염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쓰촨성은 2022년 기준 상주 인구 8,375만 명,

면적 486,000km² (대한민국 면적의 약 4.7배)를 보유한 대형 행정 구역이며 충칭은 2022년 기준 상주 인구 3,016만 5,500 명, 면적 82,370km² 을 보유한 중국 서남부의 유일한 직할시이다.¹ 중국 서남부의 경제와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쓰촨성과 충칭의 이상 기후와 전력난으로 인해 겪은 어려움과 이에 대응하는 과정은 중국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창장(长江) 상류에 위치한 쓰촨성과 충칭은 창장의 물을 활용하는 수력발전소들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아 경제 활동과 일상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 창장은 여름에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찾아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쓰촨성과 충칭에 물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 그러나 2022년 8월 초부터 가뭄과 폭염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창장의 수위는 1961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고 창장의 물을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해야 하는 수력발전소들은 물 부족으로 인해 전력의 생산과 공급을 할 수 없었다.² 그로 인해 쓰촨성은 2022년 8월 15일부터 25일까지, 충칭은 동년 8월 14일부터 24일까지 전력 공급을 제한할 수 밖에 없었다.³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찾아옴에 따른 전력공급 제한으로 인해 쓰촨성과 충칭의 기업들과 주민들은 더운 날씨에도 에어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고 일부 주택과 건물에는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다.⁴ 전력공급 제한 기간 동안 쓰

촨성에서 공장을 가동하던 자동차 제조업체 토요타와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CATL은 잠시 공장 가동을 멈추게 되었고 쓰촨성의 일부 부품 업체들은 자체 발전 설비를 활용하여 공장을 제한적으로 운영하였다.⁵ 그리고 쓰촨성의 현대자동차의 중국 상용차 법인 ‘현대트럭앤버스차이나’의 공장도 전력 공급 제한 기간 동안 공장 조업을 최소화하였다.⁶

쓰촨성 정부는 상술한 바와 같은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관할 구역의 화력발전소들을 최대한 가동하였다. 그로 인해 2022년 8월 22일에는 쓰촨성이 보유한 67기의 화력발전소에서 1,275만 kw의 전력을 생산하여 당일 전력 공급량의 25%를 담당하기도 하였다.⁷ 그런데 쓰촨성의 경우 2021년 전체 발전설비 용량 1억 1,400만 kw 중에서 수력발전소는 8,887만kw로 쓰촨성의 발전설비 용량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소는 16%, 풍력발전

2 김덕식 (2022). “中쓰촨성 “단전 5일 더”...`전력난` 테슬라·도요타 비명”, 매일경제, 8월 22일. www.mk.co.kr/news/world/view/2022/08/741941/ (검색일: 2022.09.08)

3 (2022). “重庆限电扩至11天, 康佳、京东方等已受影响”, 芯语, 8월 17일. www.eet-china.com/mp/a154495.htmlhttps://www.eet-china.com/mp/a154495.html (검색일: 2022.09.08)

4 (2022). “四川省因热浪持续开始限制电力供应”, 俄罗斯卫星通讯社, 8월 17일. <https://sputniknews.cn/20220817/1043135998.html> (검색일: 2022.09.06)

5 김덕식 (2022). “中쓰촨성 “단전 5일 더”...`전력난` 테슬라·도요타 비명”, 매일경제, 8월 22일.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08/741941/> (검색일: 2022.09.08)

6 표진수 (2022). “중국 폭염에 단전 연장...현대차 공장 가동 최소화”, 뉴스토마토, 8월 23일. 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42683 (검색일: 2022.09.05)

7 李欣忆 (2022). “全省67座火力发电厂满发尽发 占四川全网最大负荷约25%”, 四川省人民政府, 8월 23일. www.sc.gov.cn/10462/10464/10797/2022/8/23/6fd0cb0e0a7347e391603afb6701714d.shtml (검색일: 2022.09.07)

1 (2022). “四川概况”, 四川省人民政府, 3월 8일. www.sc.gov.cn/10462/10778/10876/2022/3/8/3fb2c20b47e14ede9b62e28a6c1f8f4d.shtml (검색일: 2022.09.07.)
(2022). “重庆总人口是多少2022 重庆各区县人口排名2022”, 汇博招聘, 3월 1일. www.huibo.com/zixun/detail/30193.html (검색일: 2022.09.07)

소 4.6%, 태양광발전소는 1.7%를 차지하고 있다.⁸ 쓰촨성의 이와 같은 발전설비 구조는 역내 화력발전소들, 풍력발전소들과 태양광발전소들을 최대한 가동하더라도 역내 수력발전소들의 전력 공급량과 동등하게 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는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 공급과 소비를 할 수 있으며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쓰촨성과 충칭은 고온과 가뭄으로 창장의 물이 부족하게 되면 수력발전소들을 대체할 다른 발전설비들의 설비 용량과 전력 공급 능력이 부족하여 전력 공급과 소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쓰촨성과 충칭의 사례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수력발전소는 쓰촨성과 충칭과 같이 고온과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여 하천의 물이 부족할 경우 전력 생산과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이다.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는 각종 대기오염 물질 배출과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문제가 있고 원자력발전소는 환경운동 단체들과 전문가들의 폐기물 매립과 처리의 안전에 대한 의구심과 문제 제기에 기술적인 해답을 내놓아야 하는 어

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관련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기술적으로 보완하여 반대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과 정치인들, 환경운동가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리고 향후 동북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쓰촨성과 충칭과 같이 고온과 가뭄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역내 국가들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발전설비의 종류와 용량을 파악하고 지역별 발전설비와 전력 공급구조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원자력발전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이는 원자력발전소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폐기물의 처리와 매립에 대한 의구심과 원자력발전소 가동 및 운영 과정에서 대형 사고 발생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과 수력발전 모두 기후와 자연환경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도 양국의 중앙정부가 원자력발전의 강점을 활용하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도 2025년까지 20개의 원자력발전소를 신설해 현재 50기가와트(GW)인 원전 발전량을 70GW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향후 한국과 일본, 중국이 원자력발전을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⁹

路

참고문헌

강현우 (2021). “‘탄소 중립 선언’ 中, 2025년까지 원전 20개 더 짓는다 [강현우의 중국주식 분석]”, 한국경제, 3월 8일.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3088825i>(검색일: 2022.09.07)

김덕식 (2022). “中쓰촨성 “단전 5일 더”…`전력난` 테슬라·도요타 비명”, 매일경제, 8월 22일.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08/741941>(검색일: 2022.09.08.)

표진수 (2022). “중국 폭염에 단전 연장…현대차 공장 가동 최소화”, 뉴스토마토, 8월 23일.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42683>(검색일: 2022.09.05.)

(2022). “重庆限电扩至11天, 康佳、京东方等已受影响”, 芯语, 8월 17일.
<https://www.eet-china.com/mp/a154495.html>
<https://www.eet-china.com/mp/a154495.html>(검색일: 2022.09.08.)

(2022). “重庆总人口是多少2022 重庆各区县人口排名2022”, 汇博招聘, 3월 1일.
<https://www.huibo.com/zixun/detail/30193.html>(검색일: 2022.09.07)

(2022). “四川概况”, 四川省人民政府, 3월 8일.
<https://www.sc.gov.cn/10462/10778/10876/2022/3/8/3fb2c20b47e14ede9b62e28a6c1f8f4d.shtml>(검색일: 2022.05.21.)

(2022). “四川省因热浪持续开始限制电力供应”, 俄罗斯卫星通讯社, 8월 17일.
<https://sputniknews.cn/20220817/1043135998.html>(검색일: 2022.09.06)

(2022). “四川是否应减少外送电量以自保?”, 观察者网, 8월 20일.
<https://www.163.com/dy/article/HF6VVKG4051481US.html>(검색일: 2022.09.07)

李欣忆(2022). “全省67座火力发电厂满发尽发 占四川全网最大负荷约25%”, 四川省人民政府, 8월 23일.
<https://www.sc.gov.cn/10462/10464/10797/2022/8/23/6fd0cb0e0a7347e391603afb6701714d.shtml>(검색일: 2022.09.07)

8 (2022). “四川是否应减少外送电量以自保?”, 观察者网, 8월 20일.
<https://www.163.com/dy/article/HF6VVKG4051481US.html> (검색일: 2022.09.07)

9 강현우 (2021). “‘탄소 중립 선언’ 中, 2025년까지 원전 20개 더 짓는다 [강현우의 중국주식 분석]”, 한국경제, 3월 8일.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3088825i> (검색일: 2022.09.07)

아베 총리 총격 사건, 일본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밀거름이 될 것인가?

유지아

원광대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근대 총리대신을 암살했던 시대

2022년 7월 8일 오전 11시 31분경, 아베신조(安倍晋三) 전 일본총리가 가나가와현 나라시(奈良県 奈良市) 야마토 서대사역(大和西大寺駅) 부근에서 선거연설 중 총격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총리대신 암살 사건은 근대 일본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력에 의해 종종 발생한 사건이다. 1921년 ‘평민재상’이라 불리웠던 하라 다카시(原敬, 1856-1921)는 정경유착, 재벌중심정치, 보통선거법안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암살당하고, 1930년에는 하마구치 오사치(濱口雄幸, 1870-1931)는 도쿄역에서 우익단체에 의해 저격당해 다음 해에 사망한 일이 대표적이다. 또한 1932년 5월 15일에는 해군 청년 장교가 일으킨 5.15 쿠데타로 인해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 1855-1932) 총리를 암살하였으



1936.2.26. 반란군의 병사들

며, 1936년 2월 26일에 발생한 2.26 쿠데타 미수사건에서는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清, 1854-1936), 사이토 마코토(齋藤実, 1858-1936) 등이 암살되었다. 입헌내각제를 표명한 근대 일본의 정치체제에서는 총리대신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의식이 강하였기 때문에 개혁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총리암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자주 등장했다.

사퇴 후에도 자민당을 이끈 아베 총리는 누구인가?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이에 일본의 정치세력은 암살이나 테러라는 단어보다는 총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보도도 아베 총리와 통일교와의 관련성에 주목하는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럼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개인적인 원한으로 저격당한 아베는 어떠한 인물인가?

아베 전 총리는 2006년에 고이즈미 전 총리의 임기만료로 인해 실시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1945년 일본이 패전한 후 선출된 최연소 총재이자 전후 태생 최초의 내각총리대신으로 당선된 인물이다. 그러나 2007년 동북아시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연금문제의 미해결 등으로 인해 참의원 선거에서 패하면서, 같은 해 9월 12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책임을 지고 총리와 자민당 총재를 사직했다. 이후 일본은 전후 최초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으나 3.11 대지진 이후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이러한 이유로 2012년 12월 6일 제46회 중의원의원총선거에서 다시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아베가 제96대 내각총리대신에 선출되었다. 당시 아베는 대담한 금융완화,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 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을 주요 골자로 한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Abe + Economics)를 선거공약으로 내놓았고, 일본 국민은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휩싸였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아베는 연속재직일수 2,822일, 통산재직일수 3,188일을 기록하며 역대 최장 총리대신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제 악화와 코로나19 방역 실패, 2020년 올림픽 실패 등으로 인해 2020년 9월 16일 각의에서 총사직을 발표하였다. 아베 총리는 사퇴한 이후에도 후계자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와 현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를 내세워 자민당을 이끌면서, 일본 정부가 안전보장과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자신의 의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다. 따라서 정치 한복판에 서 있는 인물의 총격 사망이 단순히 개인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건인가는 앞으로 일본에서 아베가 꿈꾼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달려있다.

아베가 꿈꾼 <아름다운 나라, 일본>의 행방

아베 전 총리는 2006년 9월 20일에 자민당총재선거 준비운동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나라로(美しい国へ)』(文藝春秋)를 발간하고, ‘활력과 기회와 친절함이 넘쳐나고, 자율정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세계에 열린 아름다운 나라, 일본’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는 자율적으로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나라 일본을 의미한다. 그럼 아베는 국제사회에 어떻게 공헌하고자 했을까?

<아름다운 나라, 일본>에 이어 아베 전 총리는 적극적 평화주의론을 주장했다. 이는 일본의 군사행동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고 군사대국화로의 변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 아베는 일본국민이 거국적으로 일어난 60년 안보투쟁에도 불구하고 미일안보체제를 성립시키고 자주적인 개헌을 주장한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1896-1987)의 외손자로 처음부터 평화헌법 제9조의 개정을 정치적인 염원으로 삼았던 인물이다.



일본의 육상자위대

따라서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과 군사대국화가 헌법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건일 발생 이후 일본은 2022년 7월 10일에 실시한 참의원 의원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이 146대 102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중의원은 2021년 선거에서 465석 중 야당이 292석을 차지하여 절대안정 다수를 이루었다. 일본의 헌법개정 조건은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하고, 발의안을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을 때 가능하다.(헌법 제96조) 일본의 2021년과 2022년 선거는 서서히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한편, 7월 10일 선거 이후 기시다 총리는 개헌에 대해 “개헌개정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먼저 국회에서 헌법의 논의를 더욱 심도있게 하여 구체적인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안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따라서 아베 전 총리가 꿈꿔온 <아름다운 나라, 일본>은 아베가 총격으로 사망한 후 후계자들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¹⁰



아베신조(安倍晋三) 전 일본총리

항일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항일전쟁의 문학적 재현과 중국 조선족 어문 교육의 현재

이은홍

순천대 국어교육과

중국 조선족과 조선어문 교육

중국 조선족은 중국에 거주하고 중국 국적을 지닌 한민족을 일컫는다. 이들은 길림성[吉林省, 지린성]·요령성[遼寧省, 랴오닝성]·흑룡강성[黑龍江省, 헤이룽장성]의 동북3성 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조선족은 일제 강점기에 일제의 압제를 피하려는 정치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 일제의 강제 이주 등으로 동북 지역으로 대거 이동했고 해방 이후에 한반도로 귀환하지 않고 동북 지역에 거주하다가 1949년 신중국이 창건된 후에 항일전쟁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중국 국민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개혁개방과 한중수교 이후 산업이 발달한 도시와 해외로의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집거 형태로 유지되던 조선족 사회가 해체되는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조선족이 겪었던 위기에 대응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이 조선족의 민족교육이다. 1920~1930년에는 일제의 황민화·우민화 정책에 대응하여 동북3성 지역에 반일애국 사립학교교육이 부흥했다. 교육을 통해 민족의 말과 글을 수호했던 것이다. 또한 해방 후에는 자치주 내에서 소수민족 언어 사용과 교육의 권리를 획득하여 민족문화교육이 활성화됐고, 1949년에는 소수민족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인 연변대학이 설립된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민족어문 교육 사업이 전면적으로 폐기되면서 조선족의 민족교육은 크게 위축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추진된 소수 민족교육진흥정책에 의해 다시 활성화되었다. 개혁개방 이후에 나타난 도시화 현상으로



어문 교과서



조선어문 교과서



한어 교과서

조선족 학교가 통폐합되는 등의 위기를 겪고 있으나 산재 지구에서 새로운 조선족 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위기를 타개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 이처럼 부침 속에서도 민족교육을 통해 민족어와 민족문화를 계승하면서 조선족 사회는 민족 동화 현상을 적극적으로 저지해 왔다.

푸통화(普通話) 보급과 조선어문 교과서

최근 시진핑 집권기에 강조하고 있는 민족 단결 정책의 영향 속에서 조선족교육의 새로운 위축 현상이 감지된다. 중국 정부는 ‘푸통화(普通話)’, 즉 현대 중국 표준어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2035년까지 전국에서 푸통화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소수민족 학교에서도 소수민족용 중국어 교과서가 아니라 중국 인민교육출판사가 제작한 중국어 표준 교재인 ‘어문(국어)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조선족 학생이 배울 수 있도록 조선족의 민족문화가 포함된 내용이나 조선어를 병기한 형태로 연변교육출판사가 제작한 ‘한어(중국어) 교과서가 사용됐다. 교과서 명칭

변화(한어/중국어→어문/국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정책은 모국어로서 중국어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대학 입시에서 소수민족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는 중국 내 지역들이 확대되는 추세와 맞물리면서, 조선족 학교에서 수학, 역사 등의 교과서를 중국어로 된 중국 표준 교재를 채택하는 경향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조선어문 교과서는 여전히 연변교육출판사가 만들고 출판하면서 굳건한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021-2022년에 출판된 조선어문 교과서에는 전에 없던 새로운 속표지가 삽입된 것이 눈에 띈다. 교과서 차례 앞에 “우리나라는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통일된 다민족 국가입니다.”로 시작되는 짧은 글이 모든 교과서에 일괄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글은 “중화민족대가정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국가통용문자”인 중국어를 “우선적으로” 학습하고, 조선어문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푸통화 정책의 영향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조선족에게 항일전쟁이 갖는 의미

중국 거주 조선인은 일제로부터의 독립·해방을 쟁취해야 하는 조선민족의 사명을 중국 내에서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한반도 조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항일전쟁의 목적과 실행 전반에서 개입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중국 조선족이 조선어문 교과서에서 항일전쟁 역사를 통해 중국 공민으로의 위상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1910년 국권피탈 이후 동북 지역을 근거지로 한 항일투쟁의 역사 가운데서도 1930·40년대에 중국공산당과 조직적으로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활동했던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의 활동을 중심으로 중국 조선족의 항일전쟁사 역사가 형상화되는 것이다. 중국 조선족에게 항일전쟁은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 국민성과 조선민족으로의 민족성의 관계 속에서 설명돼야 하는 역사라고 볼 수 있다.

항일전쟁의 문학적 재현 양상 변화:

2007-2011년과 2021-2022년

구판(2007-2011년)과 신판(2021-2022년)에 있는 항일전쟁의 문학적 재현 양상을 비교하면 조선족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방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기준점이 되는 것은 아군으로 포함되는 집단은 누구인지, 그리고 다양한 전쟁 참여 집단을 결집시키는 전쟁 논리(전쟁의 목적과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이다.

작가	국적	작품
조기천	북한	영남이(원제: 백두산)
김룡익	북한	눈빛
조성일	중국 조선족	민요 “아리랑”
김호웅	중국 조선족	불굴의 투혼-김학철선생
임범송	중국 조선족	자연미의 민족색채

항일전쟁(2007-2011년)

작가	국적	작품
손리	중국	백양전에서
빙심	중국	조그마한 굴등
륙정일	중국	로산계
-	-	목단강에 몸을 던진 여덟 녀용사
리설	중국 조선족	벗을 사궐에
손리	중국	련꽃늪
모순	중국	풍경이야기
진목	중국	땅
리성권	중국 조선족	태항산맥은 아래지 않다
임범송	중국 조선족	자연미의 민족색채

항일전쟁(2021-2022년)

첫째, 아군의 표상이다. 구판에서 조선민족 이외에 다른 아군의 형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반면 신판에서는 조선민족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항일전쟁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그 양상은 다양하다. 우선, <벗을 사궐에>, <목단강에 몸을 던진 여덟 녀용사>, <자연미의 민족색채>의 경우 독자가 작품 외적으로 조선족을 연상시킬 수 있는 정보(작가가 조선족이거나, 조선족(인)이 포함된 팔녀투강(八女投江)에 대한 지식 등)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내용, 주로 상징적인 진술과 관련 지어 조선족(인)의 항일전쟁을 연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풍경 이야기>에서처럼 구체적으로 지칭되지 않은 소수민족 전체가 항일전쟁에 참여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련꽃늪>, <땅>

처럼 소수민족과 관련 짓지 않고 항일전쟁을 중국 전체의 역사, 인민의 차원에서 서술하고 있는 예도 있다.

둘째, 항일전쟁의 목적과 의미이다. 구판에서는 한반도 ‘조국의 독립의 의미가 강하게 부각된다. 그래서 동료의 죽음 앞에 철호는 “끝까지 싸우라! 조선독립 만세!”(<영남이>)를 외치고, 김학철 선생은 일제에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항일투쟁에 투신한다.(<불굴의 투혼>) 반면 신판에서 항일전쟁은 애국주의와 국제주의의 차원에서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제주의의 맥락에서 항일전쟁은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피압박민족, 세계 인민의 해방을 위한 연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목단강에 몸을 던진 여덟 녀용사>의 글에서 여덟 용사의 민족명이 노출돼 있지는 않지만, ‘안순복’과 ‘리봉선’이 조선족(인)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 이 글의 본문에서는 “조국과 독립을 위하여 전사하는 것”을 동북항일연군의 영광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때의 독립은 한반도 조선 혹은 피압박 민족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조선’의 독립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전사의 순간 동북항일연군은 “제국주의를 타도하자!”를 외치며, <국제가>를 합창한다. 세계반파쇼전쟁의 일환으로 조선인의 항일전쟁 참여의 의미가 설명되는 것이다.

애국주의의 맥락에서 항일전쟁은 중국의 국토, 땅에 대한 보위 의식의 발현으로 나타난다. 제국주의자들과 싸운 중국의 민족영웅들은 “한치의 땅이라도 침범당해서는 안될” “자기의 육신처럼 귀중한 조국의 령토”를 수호하려고 했고(<땅>), 중국의 소수민족은 각자 다른 풍습을 지니면서도 중국 영토와 하나가 되

어 조화롭게 살아가며 이들은 “항일전쟁시기에 국내 각 민족이 단결하여 항일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변강의 풍운>의 잠정적 주인공이 된다(<풍경이야기>). 신판에서 말하는 ‘조국’은 한반도 조선이 아니라 중국이며, 공산주의 이념과 국민 정체성의 차원에서 항일전쟁의 당위성이 명시적으로 설명된다.

다시, 조선어문교육

조선어문교육은 중국 조선족 정체성의 공통성과 정합성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 때문에 조선어문 교과서에 재현된 조선족의 역사와 의미는 조선족 학생들이 자신들의 기원과 현재를 인식하는 데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중국 국민으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중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는 과제 역시도 조선어문교육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항일전쟁의 문학적 재현 양상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중국의 국민 정체성에 귀속·잠식되는 양상이 지속된다면, 조선족의 고유성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축과 회복을 반복했던 조선족 민족교육의 역사를 떠올린다면 변화에 대한 기대를 품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¹⁹⁾

류코쿠대학 <안중근동양평화센터> 창설자
이수임 교수 인터뷰



한일의 대화를 잇는 일본의 <안중근동양평화센터>

인터뷰 및 번역

조성환

원광대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선생님은 문화적 배경이 다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독자들을 위해서 살아오신 일생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는 1953년에 일본의 오사카(大阪)에서 태어난 <재일 코리안 2.5세>입니다(아버지 쪽으로 보면 2세, 어머니 쪽으로 보면 3세). 2001년에 일본 국적을 취득한 코리아계 일본인입니다. 일본의 귀화 제도는 동화(同化) 정책의 일환으로, 통상 귀화자에게는 '일본적 성명[日本の氏名]'을 채택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저는 '통칭명[通称名]'이라는 일본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굳이 'リー・スーイム[리수임]'이라는 코리아 이름을 호적에 올렸습니다.

한자로는 '李洙任'인데, <洙>라는 글자가 일본의 인명(人名) 한자에는 없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가타카나 표기의 이름이 저의 일본 호적명이 되었습니다. 귀화자의 대부분은 일본 이름을 사용하여 차별을 피하는데, 저는 굳이 코리아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일본의 학교에서는 재일코리안(在日コリアン)의 존재에 대해 아무 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은 일본인이 아닌가라는 이유나 재일코리안의 역사적 배경 등을 모른 채 대학에 진학하기까지 했습니다. 1975년에 교토에 있는 도시샤대학(同志社大学)을 졸업했는데, 식민지 지역 출신, 그 중에서도 특히 한반도 출신과 그 후손에 대한 차별이 심했습니다. 저도 예외 없이 4학년 때 극심한 취업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취직을 포기하고, 대학 졸업 후에 일본을 단념하고 미국에 영주할 각오로 도미한 것이 1975년의 일입니다. 5년 간의 미국 유학 경험은 일본에 있을 때의 "일본인이 아닌 열등감"을 불식시켜 주었습니다. 당시의 미국은 활기 넘치는(energetic) 나라였는데, 그 이유는 이민으로 성립한 <다양성>이 중시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광로'(melting pot)라고 불리는 만큼,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사회를 공유하면서 공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 높은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에서의 유학 경험을 통해 코리아계 일본인으로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등질사회를 가장하는 일본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는 활동과 '국적'

이나 '민족'이라는 틀에 구애받지 않는 문화공간의 존재를 제창하고, 다문화 공생의 시점에서 이민정책, 국제결혼, 노동자 문제와 같은 국적에 관한 문제에 몰두해 왔습니다.

류코쿠대학에서 25년간 학생들을 가르쳤고, 2021년 3월에 퇴직했습니다. 학생들에게 'equality, diversity and inclusion'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교육과 연구를 지속한 25년이었습니다. 식민지 지역 출신의 후예가, 그것도 코리아계 여성 교원이 일본의 대학에서 교편을 잡는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었습니다.



2021년 1월 19일에 류코쿠대학(龍谷大学)에서 있었던 마지막 강의. 많은 학생과 동료 그리고 시민이 참석해 주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지만 방역 수칙에 만전을 기하여 마지막 강의를 할 수 있었다. 류코쿠대학에 감사드립니다.

일본의 대학에 <안중근동양평화센터>라는 연구소가 있다는 사실을 선생님을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의 독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곳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류코쿠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안중근동양평화센터 발족에는 전사(前史)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병합 100년 시민네트워크'(이하 '100년 네트워크'로 약칭)의 활약입니다. 100년 네트워크는 당시 류코쿠대학의 교원이었던 도즈카 에츠로(戸塚悦朗) 법학부 교수님, 미시마 린 파치(三島倫八) 경영학부 교수님, 그리고 다나가 히로시(田中宏) 히토즈바시대학 사회학부 명예교수님(공동

대표), 시게모토 나오토시(重本直利) 류코쿠대학 경영학부 교수님(사무국장)이 중심이 되었고, 시민으로는 『アジェンダ(Agenda)』 잡지의 편집장 다니노 다카시(谷野隆)씨, 교토시청 직원인 나카다 미츠노부(中田光信)씨 등과 연계하면서 활동해 왔습니다. 제가 100년 네트워크 활동에 참가하기 시작한 것은 류코쿠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안중근의 유묵(遺墨)의 존재를 일본 사회에 알렸을 때입니다.

〈류코쿠대학과 독립운동가 안중근과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의 일막(一幕)입니다. 식민지 지배의 일면을 이해할 수 있는 유효한 역사 자료가 류코쿠대학에 있습니다. 류코쿠대학은 1995년에 정토진종(浄土真宗) 본원사(本願寺) 파에 속하는 오카야마(岡山)의 사찰 정심사(淨心寺)로부터 안중근 진필 유묵 세 점과 관련 사진을 기증받아, 류코쿠대학 후카쿠사(深草)도서관의 귀중서가에 ‘조용히’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의 존재를 아는 교직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안중근은 일본의 초대 총리를 사살한 인물이기 때문에, 안중근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나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안중근이라는 인물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사실은 소설보다도 기묘하다”는 말이 있듯이, 안중근을 둘러싼 사람들의 갈등이나 심리는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묵들을 역사 연구와 교육에 꼭 써 주십시오”라는 기증자의 간절한 의향과, 연구와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가능한 노력들을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계자 여러분의 생각, 여기에 100년 네트워크의 후원이 더해져서, 2011년 3월에 류코쿠대학 도서관과 서울의 안중근의사기념관 사이에 학술연구·문화교류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아울러 체결을 기념해서 류코쿠대학 주최로 “한일교류, 새로운 시대로 – 일본에서의 안중근 관련 자료의 존재 의의”라는 제목의 강연회도 실시하고, 협정에 기초한 교류 플랜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때 유묵을 매개로 적극적으로 한일교류를 실천해주신 분이 당시 류코쿠대학 총장이셨던 와카하라 도쇼(若原道昭)선생님과 도서관장 히라타 아츠시(平田厚志) 선생님이었습니다.

와카하라 총장님도 퇴직하시고, 히라타 교수님도 도서관장에서 물러나신다가 정치적 정세의 변화에 의해 한 일관계도 악화되어, 예산 운용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묵이 다시 ‘사장(死藏)’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사장(死藏)’은 도즈카 에츠로(戸塚悦朗) 교수님이 사용하신 표현으로, 도즈카 선생님은 이 때의 경위를「류코쿠대학에서의 안중근 동양평화론 연구의 여정(龍谷大学における安重根東洋平和論研究の歩み) : 100년의 잠에서 깨어난 유묵(上下)(100年の眠りからさめた遺墨(上下))」(『류코쿠대학 사회과학연구 연보(年報)』제44호, 2014년. 류코쿠도서관에서 열람 가능)이라는 논문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안중근의 유묵과 관련된 활동은 한때 정체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학내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2013년 5월에 〈안중근동양평화센터〉를 설립하고, 류코쿠대학의 히라타 아츠시(平田厚志) 선생님, 시게모토 나오토시(重本直利) 선생님에게 협력을 의뢰하고, 여기에 더해서 나카무라 히사시(中村尚司) 선생님, 그리고 류코쿠대학 밖에서는 호세대학(法政大学)의 마키노 에이지(牧野英二) 선생님, 리츠메이칸대학(立命館大学)의 카츠크라 마코토(勝村誠) 선생님, 칸사이학원대학(関西学院大学)의 나카가와 신지(中川慎二) 선생님, 시민 그룹에서는 후지이 코노스케(藤井幸之助)씨 등에게 센터 참가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강제연행으로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죽어가고, 시체가 개처럼 취급되었던 조선인 노동자의 유골을 20년 가까이 발굴하고, 한중일의 청년 교류활동을 실천하신 일승사(一乘寺)의 도노히라 요시히코(殿平善彦) 주지 스님 등의 협력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센터 운영을 위해 학외(學外) 자금을 모으는 등, 2013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노력으로 센터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20명의 연구원이 소속되어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류코쿠대학 정책학부의 오쿠노 츠네히사(奥野恒久) 교수님, 농학부의 나카타 유코(中田裕子) 교수님, 문학부의 무라오카 히토시(村岡倫) 교수님, 경영학부의 호소카와 다카시(細川孝) 교수님 등에게 센터를 넘겨 주기 위해서 저는 사무국장으로서 뒤에서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 밖에서는 엄



2015년 3월에 〈안중근동양평화센터〉 연구원들이 서울에 있는 〈안중근의사기념관〉을 방문했을 때의 사진. 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안중근의사기념관 사무국장 이혜균씨.

창준(嚴敞俊) 박사님(한일 통역능력이 발군)이나 후지이 코노스케(藤井幸之助) 씨(NPO법인 이카이노 셋바람 문고[猪飼野セツパラム文庫])가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미래〉라는 특별강연의 지원을 해주신'Eurasia Foundation(from Asia)[ユーラシア財団 From Asia]'의 사토 요지(佐藤洋治) 이사장님과 수석연구원 정준곤 선생님의 지원을 받는 등,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센터의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류코쿠대학은 380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류코쿠대학 특유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 설립 당시에는 학내에서 설립 승인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예상된 반발이었기 때문에 전혀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의 목적은 “안중근의 동양평화연구에 초점을 두면서 식민지 지배를 검증하는” 데 있다고, 냉정하게 센터의 이념과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마침내 승인을 얻었습니다. 21세기를 두 번 다시 전화(戰火)에 휘말리는 시대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역사 문해력(historical literacy)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도 존중하는”공생의 관점에서의 역사 교육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류코쿠대학의 현 총장이신 이리사와 다카시(入澤崇)선생님이 중시하신 자성리타(自省利他)의 정신으로도 이어집니다.

프랑스가 독일의 숙적에서 동맹국으로 바뀐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 그리고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폴란드와 같이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다른 나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이한 정치적 전제 조건 속에서 수십 년에 걸친 공동작업을 통해서 서로 존중하는 환경이 갖추어졌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도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화해를 향한 월경적 대화를 시민 차원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존재에 주목하여, 안중근이 여순(旅順) 형무소에서 일본인 간수들의 신뢰를 받은, 사람과 사람의 유대를 소중히 여기는 세계를 안중근의 유묵을 매개로, 일본에서만 아니라 세계로 발신해 가고 싶습니다.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도 가슴이 아픴이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적대 관계가 더 강화되면 자국이 받는 타격도 심각해 집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잃은 것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다른 나라에 끼친 손해를 돈으로 보상했다고 해결이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측면을 경시했기 때문에 이웃나라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의 〈대림사(大林寺)〉라는 절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안중근의 위패와 기념비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의 절에 안중근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것은 왜인가요?

안중근이 남긴 유묵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서 유학(儒學)이나 『논어』 등에서 고른 글귀가 많습니다. 가령 안중근과 깊은 우정으로 맺어진 일본인 간수 치바



치바 부부의 사진(치바 집안의 친척이 제공)

도시치(千葉十七)에게는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軍人本分)”이라는 글을 써주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는 의미인데, 이 글을 받고 치바는 감명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치바는 안중근을 경애하고, 그의 영정(遺影)을 만들어 매일같이 조문하였습니다. 치바가 세상을 뜬 뒤에는 그의 부인이 이어서 남편과 안중근의 영정을 나란히 모셨다고 합니다. 안중근 탄생 100주년인 1979년, 그때까지 치바와 유족이 소중하게 간직해 온 유묵은 한국에 반환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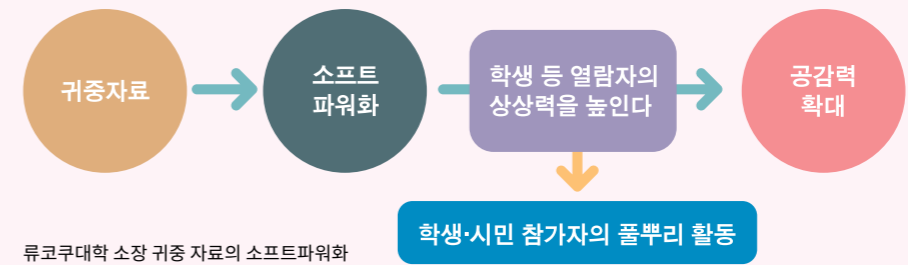
매년 9월에 미야기현(宮城県) 구리하라시(栗原市)에 위치한 대림사(大林寺)에서 안중근과 치바 도시치의 합동 제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제사에는 일본의 <안중근 숭모회(安重根崇慕会)> 주최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한국으로부터 매년 약 3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2015년 9월 13일에 대림사 주지 사이토 다이켄(齋藤泰彦)이 합동제사를 거행하고, 오후에는 구리하라시(栗原市) 구리코마사담회(栗駒史談会)에 의한 한일친선교류회가 개최되었는데, 저도 참가했습니다. 일본의 센다이시(仙台市)와 한국의 광주광역시(光州廣域市) 간의 자매결

연 체결을 비롯하여, 16개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6개의 한일친선협회와 6개의 한일의원연맹이 결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일교류를 이야기 한다는 점에서 지방 도시의 활약은 중시할 만합니다. 대림사의 안중근과 치바 도시치의 합동제사는 월경적인 국제 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의 시간에 ‘안중근’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안중근의 유묵이 왜 류코쿠대학에 있는가?”라는 소박한 물음을 학생들에게 던지면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역사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창조력을 소중히 여기면서 학생들이 독자적인 역사관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든 학과에 열려있는 교양과목 특별강의 “동아시아의 미래 – 국민국가의 개념을 넘어서”라는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대학’이라는 장(場)은 “교양력을 단련하는 장”이어야 합니다. 인간력과 교양력이 있으면 인생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권력자의 유도(誘導)나 강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힘으로도 이어집니다. 안중근의 유묵이 낳은 메시지의 힘은 멋져서, 강사가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중근의 필력, 그리고 여순형무소에서 유묵을 제공한 일본인 간수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지하게 마주 대하고, 유학(儒學)이나 『논어』에서 적절한 메시지를 남긴 것입니다. 그것도 형무소에서 참고서 하나 없이 어려서부터 길러온 인간력과 교양력으로 일본인 간수들과의 ‘마음의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안중근의 유묵을 열람하면서 이와 같은 인간력과 교양력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느끼는 감성을 소중히 여기면서 대화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교수로 대표되는 지식인은 아무래도 일방적으로 자신의 전문성에 기초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강매(強賣)합니다. 그런 수업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수동적이 됩니다. 그러면 대학의 본래의 책임은 완수할 수 없습니다. 대학이란 사회에 나오기까지 ‘자립정신’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안중근이 자기 나라를 생각하는 부분을 이해하는 공감력을 기르는 것도 이 강의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



류코쿠대학 소장 귀중 자료의 소프트파워화

목적을 위한 교육자원으로서 안중근의 유묵은 절대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안중근의 유묵을 실제로 보여주면, 그의 열정적이면서도 냉정하고 침착한 인격이 드러나는 문제로부터 결코 그가 테러리스트가 아님을 학생들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TV나 영화와 같은 소프트파워의 힘을 빌려서 수업 효과를 고조시킵니다. 1995년에 안중근과 일본인 간수들의 관계를 다큐멘터리로 소개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TV아사히(テレビ朝日)의 「놀라운 20세기(驚きもの木二十世紀) - 이토 히로부미를 쏜 남자(伊藤博文を撃った男)」입니다. 여순형무소에서 인간관계에 초점이 맞춰진 다큐멘터리로, 당시 일본 사회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류코쿠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3점의 유묵이 소개되었습니다. 1995년은 무라야마(村山) 정권이 탄생하고, 고노 담화(河野談話)에서 종군위안부에 대해 사죄한 시대이기 때문에, TV와 같은 미디어나 시청하는 국민도 역사를 복안적(複眼的)으로 보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겠지요.

이 강의에서 학생들은 멋진 소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안중근이라는 인물은 마음의 월경(越境)을 가능하게 한 인물. 그것은 오늘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소통력(communication power)이다.”라고 평가한 학생이 있습니다. 역사 인식에서는 가해자, 피해자라는 단순한 이항 대립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나 경제 그리고 문화와 같이 복안적(複眼的)으로 사건이나 사태를 보면 완전히 다른 견해가 생긴다는 사실을 이 수업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평가는 높았고, 제가 퇴직한 후에는 안



사형수 안중근을 만난 교회사(敎諭師) 츠타 카이준(津田海純). 당시 정토진종(淨土眞宗) 본원사파(本願寺派) 파견 관동별원(關東別院) 여순출장소(旅順出張所) 감옥교회사보(監獄敎諭師補)



한국을 방문한 류코쿠대학 학생들. 2017년 3월.

중근동양평화센터를 맡아 주신 오후노 츠네히사(奥野恒久) 교수님과 센터의 연구원인 나카다 유코(中田裕子) 교수님이「동아시아의 미래」수업을 맡고 계십니다.「류코쿠대학에서 평화를 구축한다」는 부제로 인기 강좌가 되었습니다.

「동아시아의 미래」수업을 이수한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한국에 인솔하여, 한국의 젊은이들과의 교류를 도모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학생 중 한 명은 나중에 한국에 1년간 유학할 결심을 하였고, 실제로 실현시켰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이나 미국을 오가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과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는 약 130만명의 코리아계 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적법이 생지주의(生地主義)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계 미국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이나 일본은 혈통주의에 기초한 국적법이기 때문에 귀화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적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혈연의 무게’를 중시하는 점에서 가치관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에 대해서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는 어떻게보셨는가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안중근 연구가 활발하지 않지만, 코리아계 미국인들의 관심은 높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 코리아인은 외국인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지방 참정권조차 부여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코리아계 미국인은 미국인 시민권을 얻고 있고, 대통령 선거에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중근위안부나 징용공(徵用工) 문제 등에 열심히 참여하는 코리아계 미국인은 다른 아시아계와연계해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일본계 미국인과의 연계도 강합니다. 이 외에도 같은 아시아계뿐만 아니라, 공민권의 관점에서 다른 소수파와도 연계를 하고 있어서 이른바‘아시아주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미국으로부터의 발신이 한국이나 일본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큼니다. 미국에서는 일본 연구가 쇠퇴 일로를 걷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사회도 분단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두에 의한 미국과 중국의 경제마찰로 인해 미국에서의 아시아 연구가 크게 영향받으리라 예상됩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에 이끌리지 않으면서 평화구축의 노력을 해야 할 책임이 시민에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버드대학(visiting scholar)이나 스탠포드대학(visiting fellow)에도 적(籍, Affiliation)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안중근이 지향한 목적을 미국에서 발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참뜻이 동양평화의 실현에 있었다는 사실은 일본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안중근은 재판에서 조선의 독립을 침해하는 일본의 폭력적인 식민지 지배를 비판하고, 동양평화를 위해서는 한중일 삼국이 서로 독립국으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하였는데, 오늘날 그의 신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안중근동양평화센터에서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를 통해, 현대 일본과 동아시아 정세를 응시한 상태에서 과거·현재·미래를 이으면서, 안중근 동양평화론의 현대적(21세기적) 재평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연구서를 2권 간행했습니다. 2번째 책은 저의 퇴임을 기념해서 나온 논문 모음집으로(편집위원장 히라타 아츠시 平田厚志 선생님, 사무국장 시게모토 나오토시 重本直利 선생님), 서울의 안중근기념관과 매년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모아서‘안중근의 사상과 행동’을 고찰했습니다. 안창호나 안중근의‘동양평화론’의 형성 배경을 논하고, 특히 안중근이 니콜라 빌렘(Nicolas Joseph Marie Willhelm, 한국명 홍석구, 1860~1938) 신부로부터 받은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평생동안 조국의 독립을 바라면서 싸웠던 안중근이 사

형을 눈 앞에 두고 도달한 세계관은 ‘동양평화론’인데, 나카무라 히사시(中村尚司)의 논문에서는 ‘동양평화’라는 용어가 평이해 보이지만, 당시의 중국어나 코리아어에 없었고, 근대 일본어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의 평화사상과 그 국제적 연관성의 중요성이라는 시점에서 일본 지식인이 안중근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었는지를 고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일본 지식인은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 도쿠토미 소호(徳富蘆花), 나츠메 소세키(夏目漱石), 그리고 이시카와 타쿠보쿠(石川啄木) 등이었는데, 안중근의 사상과 행동에 대한 이해는 얕고, 일본의 폭력적인 식민지 지배에 대한 비판도 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 일본의 지식인들이 목소리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여순형무소의 일본인 간수들이나 유목을 가지고 돌아온 교회사(教誨師) 등의 용기 있는 행동은 주목할만합니다.

히라타 아츠시의 논문에서는 구리하라(栗原) 형무소장[典獄]의 셋째 딸인 이마이 후사코(今井房子)의 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아버지는‘저 남자는 살인범이지만 처형하기에는 아까운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였습니다. 처형 시간이 가까워지자 아버지는 부탁받은 비단 한복을 안씨에게 드렸습니다. 아버지는‘정말 죄송하다’고 사죄했다고 합니다.”

안중근의 유목을 일본에 가지고 돌아온 교회사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부에 발견되면 중범죄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물음을 류코쿠대학 학생들에게 물으면, 일본 불교와 식민지 지배 관계나, 지금도 존재하는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도 그렇습니다만 한일관계도 갈수록 경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해결책이나 대안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시민의 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식인이나 정치가의 힘의 한계는 안중근 시대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일교류가

활발하고 일본에서는 K-Pop이나 한국 드라마가 대인기입니다. 이 소프트파워를 매개로 많은 일본인은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의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멋진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헤이트 스피치(혐한 발언)가 없어지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만, 이웃 나라의 문화를 아주 좋아하는 일본인은 확실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중근의 유목은 실로 소프트 파워입니다.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필체를 보면 안중근의 생각을 체감할 수 있으니까요.

학술 교류도 당시의 정치에 의해 크게 영향 받습니다. 연구자는 연구하기 위해 연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소프트 파워입니다. SNS나 인터넷 정보의 폐해는 심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의 정보를 간단히 입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가 인기 있는 이유는 한국 역사를 바탕으로 사실(史實)에 가까운 스토리성과 진실성 때문입니다. 거기에 시청자가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에서의 한국 드라마 히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년 퇴임을 한 몸입니다만, 앞으로 몇 년은 이 센터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2021년 2월 16일에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에도 한일국제학술대회를 이어갔습니다. 소프트 파워에 주목하여 전남과학대 김정훈 교수님께서 나츠메 소세키와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발표하셨고, 일본에서 저명한 극단인 ‘문학좌(文学座)’는 1995년에 공연한 연극〈한화(寒花)〉를 재연(再演)했습니다. “나츠메 소세키는 식민지 지배를 어떻게 생각하였는가?”라는 새로운 시점에서 접근한 학술대회에는 200명 가까운 청중이 참석하여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한화〉는 여순형무소에서 안중근을 둘러싼 일본인 간수들의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실로 오늘날에도 통하는 주제입니다. 사회가 분단되는 가운데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무장 등, 뒤숭숭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시민이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다음 세대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중근의 유목을 매개로 발신해 나가고자 합니다. 路

통일운동가
최재영 대표 인터뷰

<한반도 역사화해>의 길을 찾아서



최재영 대표는 남과 북을 서툰 왕래하며 집필과 강연 활동을 통해 남북의 동포들에게 민족화합과 자주통일을 위한 새로운 이슈와 비전을 제시하는 통일운동가이다. <Social Movement Group NK VISION 2020> 설립자이며, 산하에 손정도목사기념학술원(역사), 동북아종교위원회(종교), 남북동반성장위원회(경제), 오작교포럼(언론), 문화예술위원회(예술) 등 다섯개 기관을 두고 활발히 시민사회운동을 펼치고 있다. 저서로 『남북의 독립묘지를 찾아 역사 화해를 모색하다』(메아리), 『전태일 실록(전2권)』,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북녘의 교회를 가다』, 『손원태 회고록』,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띄우다』 등이 있다.

인터뷰

조성환

원광대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선생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직함이 <NK VISION 2020 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NK VISION’은 어떤 곳인가요?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남과 북의 당사자들도 중요하지만 해외동포들의 역할과 기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실질적인 통일담론과 통일운동은 해외동포들이 적극적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의미에서 미국에서 결성되었습니다. 현재 남과 북의 당사자들은 과거 대미, 대일 관계의 역사에서 파생된 이데올로기와 체제수호 때문에 참여하게 대립 중입니다. 그래서 해외동포들의 중재와 가교 역할이 절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아가서 해외동포들이 조국통일의 주역으로서 당당하게 동참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NK VISION 2020>산하에 손정도목사기념학술원(역사), 동북아종교위원회(종교), 남북동반성장위원회(경제), 오작교포럼(언론), 문화예술위원회(예술) 등의 다섯 개 기관을 두고서, 해당 전문가를 대표로 선출하여 조용하면서도 역동적인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NK VISION 2020>은 통일지향적 시민운동단체나 NGO, 학술원 등의 통합적 기능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기구 이름 앞에 항상 “social movement group”이라는 명칭을 넣고 있습니다.

저는 설립자이면서 기구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로서, 남과 북을 오가며 집필과 강연을 통해 동포들에게 민족화합과 자주통일을 위한 새로운 이슈와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언론에서는 저를 ‘통일운동가’, ‘북한전문가’라는 타이틀도 붙여주더군요. 현재 가장 주력하고 있는 일은 남과 북이 역사

적·민족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전파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이념과 가치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민족 공조를 이룰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단체 구성원들과 회원들은 “민족화합-민족공조”라는 통일방법론에 대한 신념이 확고합니다. 통일문제에 역학적으로 직접 연관되어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은 우리민족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의 남북통일을 절대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4개국과의 공조나 협력은 오히려 통일이 지체되고 장애가 되는 저해요소가 되는 반면 민족공조만이 통일의 열쇠이자 지름길이라는데 대해 적극 공감하는 이들이 모인 곳입니다.

정리하자면<NK VISION 2020>은 “민족화합-민족공조”라는 모토 하에 해외동포들이 적극 참여해서 통일과업완수에 공헌하자는 운동이며, 아울러<남·북·해외동포>3자가 통일과정에서 주체가 되도록 기반 조성을 하는 민간차원의 기구입니다.

그동안 북한 관련 책을 많이 내셨는데 주로 북한의 교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남북의 독립묘지를 찾아 역사화해를 모색하다』는 북한의 독립묘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독립묘지’에 주목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북한에서는 독립묘지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

개인적으로는 서문에 나오는 “독립묘지에 잠들어 있는 분들의 화해를 깊이 생각해 오셨다”는 말씀이 와 닿았습니

다. 2000년 무렵부터 한국에서 전개된 ‘생명평화운동’도 처음에는 지리산에 잠들어 있는 좌우익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은 우리 겨레가 일제로부터 해방된지 70주년이 되는 해였지요. 해방되자마자 외세에 의한 분단 때문에 영토는 남북으로 절단 나고 민족공동체는 이산가족이 되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감내하며 서로 적대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분단 70년, 해방 70주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돌이켜보니 2천년동안 수 없이 침략한 일본과도 수교를 맺었고, 월남전에서 서로 싸운 베트남과도 수교를 했건만, 같은 민족이자 동포인 북한과는 아직도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니 역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더구나 우경화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민족공조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이, 불순하기 짝이 없는 외세의존의 반복(反北), 반통일적 사대주의 허상을 정부의 공식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으로 내놓고 선전하였으며 흡수통일-북진통일-자본주의 점령군식의 통일시나리오를 짜놓기까지 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제국주의를 등에 업은 분단 마피아들의 횡포와 통일망상자들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광복과 자주독립을 이룩하고 통일된 주권국가가 되려면 먼저 우리 민족의 분단 문제는 남과 북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직접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재적 관점에서 상대를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측은 친북이 되어야 하고 북측은 친남이 되는 일이 매우 자연스러운 시대

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실제로 그런 상태가 벌어진다면 이는 결코 상대에 대한 굴종이나 타협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공조의 첫 걸음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의식의 일환으로,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과 북의 국립묘지에 잠들어 있는 분들이 과연 화해할 수는 없는 것일까?”에 대해 깊이 생각해 왔습니다. 부모 형제를 죽인 원수의 무덤이라도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보듬어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지상 최고의 그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더 위대한 것이며 모든 종교들이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를 뛰어 넘는 사랑의 대혁명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에서, 70주년을 앞둔 3년 전부터 남북의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모든 영령들에게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에 의해 어떤 계기가 마련된다면 죽은 이들의 화해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를 궁리하고 있던 참이었지요.

그래서 <남북의 국립묘지를 찾아 역사화해를 모색하다>라는 프로젝트를 세워 3년 동안 남과 북을 서틀 왕래하며 실행에 옮겼지요. 분단 이후 최초로 북측과 남측의 국립묘지를 교차 방문하며 역사화해를 시도하는 중차대한 일에 도전한 것입니다. 통일지향적인 민족애의 발로가 아니었다면 이억만리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두 개의 조국으로 나뉜 양측을 오가며 무덤을 보듬고 비석을 어루만져 주는 일은 결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상대를 죽인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영웅·열사·용사·투사·지사로 분류되어 남북의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인데, 이는 결국 같은 혈육인 부모형제끼리 서로 살육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과 표창을 받은 것이 아납니까? 그래서 저의 의

도는 무덤 속의 영웅 열사들이 죽어서나마 서로 이질화된 간극을 좁히기를 소망했고, 용서와 사랑의 불씨를 지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의 위정자들과 정치인, 성직자들에게 이러한 현실을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남과 북이 화해를 위해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고 자부합니다.

『남북의 국립묘지를 찾아 역사화해를 모색하다』의 서문을 보면,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무려 3년 동안이나 남북을 오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책을 쓰시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는지,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프로젝트를 세운 후 막상 일을 벌이고 보니 미국에 살고 있는 내가 이억만리 떨어진 남북의 국립묘지들을 탐방하는 일은 그리 녹록치 않았어요. 마치 탐험가나 모험가들이 그랜드 슬램(Grand Slam)에 도전하는 과정처럼 무모해 보였고 장애요인들도 잇따랐는데,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강박한 대북 정책은 나로 하여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했습니다. 그 정권들은 나에게 국보법의 텃을 놓기 위해 은밀하게 파일을 만들어 뒷조사와 추적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문재인 정부마저 4·27판문점선언 직후인 6월 2일에 강연 차 미국공항에서 출발해 부산 김해공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북측 국립묘지 탐방을 빌미로 나를 국보법으로 얹어매어 여러 차례 조사를 하며 괴롭혔다는 사실입

니다. 그로인해 <북 바로 알리기 운동> 차원의 강연과 집필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의 처사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극우·보수 세력들이야 원래 그러려니 하는데, 진보를 자처하는 일부 세력들한테도 근거 없는 음해와 질시를 빈번히 받게 되니 마음이 안타깝고 의욕을 상실한 적도 있었죠.

그뿐 아니라 ‘남-북-미’ 측의 담당기관에 프로젝트를 승인받거나 일일이 리포트를 하는 절차도 번거로웠지요. 또한 초행길에서 해매듯 일일이 양측의 묘지들을 탐방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그보다 ‘남-북-미’ 모두가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념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일이 더욱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난관들을 모두 헤치고 마침내 한반도 DMZ 그 아픈 허리를 따라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 마치 산악인들이 7대륙 최고봉 등정과 3극점 달성을 마치고 그랜드 슬램을 이룬 것처럼 뿌듯함과 희열을 느꼈습니다. 역사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참관했다는 차원을 넘어 마치 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다녀 온 것과 같은 숭고함마저 느껴졌지요. 사랑과 평화와 화해의 그랜드 슬램 달성을 위한 도전은 결국 남과 북 양측 사회에 미세한 파장과 긴여운을 남겼다고 자부합니다.

국립묘지 탐방 일정 중에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평양에 있는 ‘재북인사묘지(在北人士 墓地)’에 돌비석 사진제작을 위한 영정 사진을 구해다 준 일이었습니다. 묘지를 둘러보고 있는데 몇 개의 비석에 고인들의 비석 사진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묘지관리 책임자들에게 사연을 들어보니 사진을 구하지 못해 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즉시 남측으로 돌아와서 2년 동안 틈

틈이 해당 망자(亡者)가 속한 문증을 찾아가
사료들과 향토지들을 이 잡듯이 뒤져서, 마침
내 사진들을 입수해서 북측 당국에 제공해 준
결과 재북인사묘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나에게 씌워진 여러 가지 국보법 혐의들 중에
“북측 묘지에 사진들을 구해서 제공해 줬다”
는 혐의도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 ‘혐의 없음’
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시민권자인 나를 국보법으로 형
벌을 줄 사안이 아니라, 남측 정부가 할 수 없
었던 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훈장을
줘야 할 일입니다. 재북인사묘지는 남측의 제
헌의원과 2대 의원들이 무려 42명이나 안장된
곳이고, 초대 서울대 총장 이춘호 박사, 초대
고려대 총장 현상운 박사, 초대 동국대 학장
허윤호 선생 등 지식인과 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지원했어야 할 상황이거든요.

아직도 ‘북한’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특히 젊
은 층들 사이에서 더 그런 것 같은데, 대
표님이 직접 보고 경험하신 북한은 어
떤 사회인지요?

분단 77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돌아켜보
면, 그동안 내가 방문해서 목격한 북한은 자주
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미결전 때문에 늘 고
군분투 중이었습니다.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의 제재, 고립, 압살책동과 맞서 싸우는 와중
에도 국제사회에서의 일원으로 역할을 감당
하느라 전 인민이 하나로 혼연일체가 된 상태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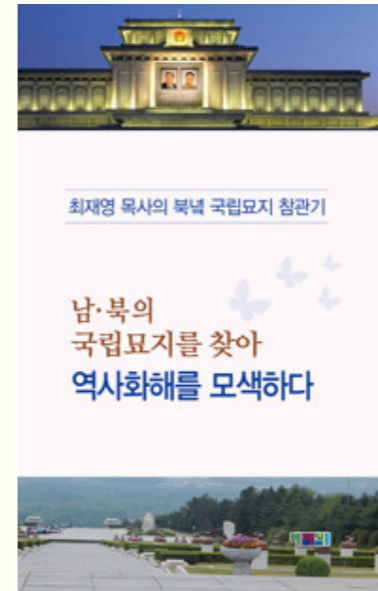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로서 공식 등장
(취임)하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방북했는데,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관되게 확
인되고 검증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김위원
장 자신이 청소년시절 유학을 했던 스위스와
유럽 사회를 모델로 사회 발전을 도모해 왔다
는 사실입니다. 특히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유럽풍의 목가적인 풍경, 목장, 초원, 공
원, 스키장, 전원주택 등인데, 그런 시설들을
북한 전역에 추진하고 적용해서 현실화했더
군요.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의 목장인 세포등
판, 마식령스키장 신설과 삼지연 베개봉스키
장 확장, 평양과 각 시도에 조성된 도시와 지
방 공원화 사업, 원산 앞바다에 조성된 엄청난
규모의 관광벨트단지, 삼지연지구를 비롯해
각 시도에 조성 중인 유럽풍의 전원주택단지
건설 등은 좋은 사례들입니다.

김정은 시대의 국가 발전 목표는 강성대국, 정
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으로 설정되
어 있는데, 이미 김정일 시대에 정치사상강국
과 군사강국은 달성되었고, 김정은 시대는 경
제강국을 당면 과제로 내세워 10년간 줄기차
게 달려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제강국은 인
민경제-자립경제의 결정체이자 결과물이기
때문에, 수입과 수출이 막히고 외부의 지원이
끊긴 상태이지만 주체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
다고 봅니다.

한편 헌법에도 이미 핵보유국임을 천명하면
서 핵무장력을 완성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6개 국가의 위상에
걸 맞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가 되었고, 미
국과는 군사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하
는 국가로 발돋움했다고 봅니다. 아직도 핵무
기의 고도화, 첨단화, 소량화, 경량화 등의 과
업들이 남아있지만, 머지않아 괄목할만한 군
사력으로 국제사회와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입지가 더욱 공고화될 것입니다.

특히 ‘전략무기’는 전쟁의 판도를 한 번에 바



남북의 국립묘지를 찾아



전태일실록

꿀 수 있는 무기를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 등입니
다. 단거리 미사일, 그 중에서도 사거리가
300km 미만의 소형 미사일은 보통 ‘전술무기’
로 분류되는데, 북한은 이런 전략무기와 전술
무기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는 평양 외곽에 있는 ‘조선인민
군 무장장비관’을 두 차례 참관한 적이 있는
데, 전시관 안팎에는 해방 후에 북한의 인민정
부가 들어서면서 최근까지 생산한 모든 무기
들이 실물로 전시되어 있을 정도의 방대한 규
모여서 이틀간 자세히 관람해야 합니다. 원래
‘전략무기’란 전술적인 승리를 이루지 못한 상
태에서, 단계를 건너뛰어서 곧바로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무기들을 말하는데, 이곳 무
장장비관은 이런 무기체계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서 북한의 군사력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일관계도 그렇습니다만, 남북관계도
최근 들어 다시 경색되고 있습니다. 남
북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
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는지요?

우리 민중들은 77년 세월 동안 본의 아니게
일선 학교와 언론, 반북(反北)적인 탈북자들
을 통해서 머릿속에 반공의식이 대리석처럼
굳어지고 고착화되었는데, 이제 이것들을 과
감히 던져버려야 합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왜곡되고 굴절된 정보들과 뉴스들이 난무하
는 상황에서 북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올바
로 알아가려는 운동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활
화산처럼 번져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북을 부
정적으로 바라보는 “적대세력-냉소세력-비판
세력”들이 변화되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해세력-우호세력-소통세력”으로 바뀌는 일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5·24대북제재 정책을 통해 대북적대 정책을 노골화, 적극화하였고, 미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펼쳤습니다. 원래 유엔제재 시스템에는 빈 구멍이 많았는데, 미국제재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 구멍들을 촘촘하게 엮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설상가상으로 5·24조치를 통해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빈틈을 완벽하게 보완해 주면서 미국 주도의 제재 정책에 힘을 보태주는 반(反)통일적인 역할을 자행했던 것이죠. 미국의 하수인 역할을 통해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나 민족의 앵글로 보지 않고, 적성국가로 규정하고 주적으로 상대했던 것입니다. 설령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옥죄고 고립화 시킨다고 해도, 우리 정부는 비록 북한을 두둔하거나 감싸주지는 못할망정, 불난 집에 휘발유 끼얹듯 대북제재에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서 적극적인 정책을 펴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고 군사력을 키우는 일로 몰아가는 자살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초에 한국에서는 6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노동자 집회가 열렸습니다. 뉴스를 접하는 순간, 몇 년 전에 집필하신 『전태일 실록(전2권)』이 떠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인차별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도 있었습니다. 남북문제, 한일문제가 외부의 문제라면, 노동자와 장애인은 우리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0년 넘게 전태일을 연구하신 분이로서, 이런 내부적 갈등과 위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과 노동자 문제는 한 국가의 국력과 정책수준, 시민들의 사회윤리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라고 여겨집니다. 지금은 이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진입한 시점이고, 산업이 발전할수록 노동자의 역할은 줄어들고 노동의 질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특정노동은 시대상황에 따라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영역입니다. 근로자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임금 등은 노동문제로 발전하고 진화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는 언제나 법에 의해 보장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계속해서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관리감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한국은 훌륭한 민주주의를 이루고 경제성장을 달성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여러 분야에서 최악의 통계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18년째 자살률이 세계 1위이고(2018년 한해만 2위), 노인빈곤률도 세계 1위를 했습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전 세계에서 노동자들이 매일 가장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통계들입니다. 노동자의 산업재해률은 무려 23년째 세계 1위인데, 2002년 월드컵이 열리던 해부터 2022년까지 20년동안 사망한 한국의 노동자 숫자가 무려 46,000명이나 됩니다. 일하기 위해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출근한 노동자가 귀가하지 못하고 노동현장에서 죽어간 이들이 20년간 4만 6천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기업의 비용보다 낮게 보는 나라가 한국 정부와 한국의 기업들입니다. 아무리 정권교체를 해도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노동자 사망률, 남녀차별, 장애인차별, 세계최

장기 노동시간 등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 원인은 잘못된 정치구도에 있습니다. 왜곡된 정치지형이 문제인데, 그렇다면 왜 그토록 잘못된 정치지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바로 분단체제 때문입니다. 분단체제 때문에 한국의 정치지형은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보수정치지형으로 바뀌고 우경화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노동자와 장애인들의 삶이 일반국민들 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기업이 노동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법의 규정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노동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가 정권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하는데, 역대 정부들은 노동자 편에 서기보다는 기업주와 회사 편에 서서 정책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노동자 6만 여명이 서울광장에 집결하여 ‘7·2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이유도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 때문 아닌가요? 윤 정부는 한마디로 노동자들에게 노예로 살라는 것이죠. 더 많은 노동을 하라고 주문하면서 임금은 그냥 주는 대로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부자에게 엄격한 세금을 징수하고, 서민에게는 공공성을 보장해야 하며, 노동자에게는 노동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현 정부의 노동부장관이 발표한 노동개혁안을 살펴보면 만약에 초과 노동까지 하게 되면 1주일에 92시간은 일해야 하는데, 이는 고무줄 노동시간으로 사측의 입맛대로 일을 시키고 임금은 줄이겠다는 ‘노동개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노동자들이 시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구나 최저임금이 5% 인상으로 결정되었는데, 올 하반기 물가가 6%씩 오른다고 하니 수치상으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내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 담론은 보호와 재활의 수준에서 발전해 권리와 자립으로 변모해 왔습니다. 한국 사회의 장애인들은 시혜와 동정으로 얼룩진 세월을 모질게 살아왔으며, 노동자들은 수십 년간 끊임없는 항쟁과 투쟁, 시위들을 통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장애인차별철폐운동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를 쟁취하려는 당사자들의 간절한 외침이지 정치적인 이유가 개입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장애인권리에선 반영을 책임 있게 약속하고 지켜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문제를 개개인이 극복해야 할 비극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위정자들과 사회지도층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장애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정한 적이 있지만, 결국 갖가지 실효성 없는 시험사업에 불과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가령 3년 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개인별 특성이나 지자체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서비스와 인력 예산이 부재했고,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원칙을 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인권침해사건 및 재난·위기상황 등 긴급한 탈시설·자립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도 전혀 없었는데 이는 비현실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한 것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준석 전 당대표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볼 때, 정책적으로 더욱 후퇴하지 않을까 매우 염려됩니다. 

범지구적 위기들과 생활세계 개념의 전환: 비인간존재들과 함께 하는 생활세계

박일준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팬데믹으로 이동과 만남의 자유가 제한되어 왔던 지난 3년 간 우리는 소위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었던지를 절감한다. 아직 팬데믹의 종식이나 엔데믹으로의 전환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금, 다시 코로나 확진자들의 증가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 지구문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보다, 이 바이러스가 진화를 한다는 사실이다. 바이러스의 진화가 새삼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바이러스류가 진화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인류의 방역체계를 우회하여 진화하는 바이러스의 모습이나, 인간과의 공생을 위해 치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이러스가 진화하는 것들은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바이러스류의 설명과 잘 들어맞지 않는다. 그러한 진화는 마치 바이러스류가 지능이나 의식을 갖고 있는 듯하기 때문이다. 통상 우리는 지능이나 의식은 고등 유기체들, 즉 포유류 이상의 유기체들에

게만 가능한 것이며, 그마저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쓰고 있는 지능이나 의식의 수준은 인간 차원에서만 발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팬데믹에 대응하여 개발된 백신을 우회하는 변종을 만들어내는 진화라니? 만일 바이러스가 지능이나 의식이 있다면 거의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지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일까? 바이러스는 생물도 유기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죽어있는 수동적인 물질도 아니다. 바이러스는 자체 안에 스스로의 신진대사를 위한 기관이나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바이러스는 숙주 세포 내로 침투하여, 숙주 세포의 자원을 활용하여 바이러스 자신을 복제하게 만듦으로써 삶을 이어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세포막의 단백질 통로를 뚫고 들어갈 단백질 껍데기와 DNA나 RNA 가닥들로 구성된 내부 구조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지능이나 의식이 작동할 여지는 전혀 없다. 그런 바이러스가 인간 유기체와 문명의 방역에 대응하여, 진화를 통해 생존을 이어나갈 방식을 찾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수동적’

이거나 ‘죽어있다’고 생각했던 물질 혹은 물(物)이 행위주체성(agency)을 발휘하고 있음을 증거한다. 다시 말해서, 비유기체적 존재들도 생물 유기체처럼 ‘행위주체성’(agency)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팬데믹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강력하게 주지시키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어떤가? 기후변화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정작 문제는 지금의 기후변화가 인간과 문명에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기후는 미세한 변동에도 반응하는 아주 섬세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시스템은 신생대 이래로 포유류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에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었다. 그런데 홀로세의 가장 최근 시기, 즉 인류 문명이 출현한 시기 이후, 특별히 ‘인류세’(Anthropocene)라 불릴 만큼 인간의 생태적 영향력이 크게 반영되는 시기에 이르러 기후변화는 인류뿐만 아니라, 포유류를 비롯한 다양한 생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를 야기하기에 이른다. 오존층 파괴는 단지 자동차 배출가스 때문만은 아니며, 이보다 더 큰 영향력은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육류소비가 늘어나고, 이 식용 육류를 위해 사육되는 소나 돼지 등이 똥어내는 메탄가스가 오존층 파괴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후변화를 단지 특별한 이상징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지금의 이 치명적인 기후변화는 인류가 지구의 일상적인 변화 패턴을 인간중심으로 변화시켜온 데 따른 결과이다. 그렇지만 지금 기후변화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야기한 변화에 다른 비인간 존재들과 시스템들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우리 인간 문명의 행위에 대한 비인간 존재들과 시스템들의 반응 결과가 기후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후 후 시스템의 변화를 물(物)의 역습으로 진지

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사용하고 소비하는 물질들은 그저 수동적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주체성에 맞추어 반응하는 자신들만의 행위주체성을 갖고 있다. 태평양 한복판에 형성된 쓰레기섬은 처음 발견될 당시 남한 면적이었지만, 수년 후 한반도 7배 면적으로 커졌다. 이 쓰레기 물질들은 그냥 버려져서 그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구라는 시스템의 행위주체성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이 버려진 사물들이 인간의 문명적 행위주체성에 맞서 물(物)의 행위주체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우리의 문명적 행위주체성은 그런 쓰레기섬의 행위주체성이 발휘되도록 의도하거나 찬성하거나 동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비인간 존재들의 ‘행위주체성’(agency)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이 물(物)의 행위주체성은 세계가 국경으로 구획되지만은 않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새삼스레 주지시킨다. 사람의 왕래는 국경에서 통제를 받지만, 이보다 더 근원적인 실재, 즉 물(物)의 얽힘은 인간 문명이 세워놓은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다. 즉 인간의 정치적 질서와 실재와 사물의 질서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이 문명에 미치는 힘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인류세’(Anthropocene)라 일컬어지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바로 이 인류세 시대에 문명이 기후변화와 생태위기 그리고 팬데믹으로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은 인간의 문명질서와 실재의 질서 간의 불일치가 야기하는 긴장관계가 매우 위험하게 변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징후이다.

더구나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뀌기도 전에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범지구적 위기가 언제든지 전쟁의 위기로 전환될 수 있음

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각 지역마다 팬데믹은 경제위기와 그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극우적 민족주의나 국가주의가 양등할 때, 이러한 정서는 언제든지 내부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의 적을 침공하는 방식을 부추기기 마련이다. 그리고 전 세계가 소위 ‘세계화’(globalization) 이후 물류와 생산체계가 연결망으로 구성된 지금, 어느 한 지역에서의 전쟁과 같은 위기는 전세계적인 위기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우-러 전쟁 이후 세계 식량위기와 반도체 위기 등으로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의 ‘생활세계’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증언한다. 생활세계(Lebenswelt, world of life)란 개념은 본래 독일 철학자 에드문트 훗설(Edmund Husserl)이 인간의 의식주를 기본으로 하는 삶의 영역, 즉 일상의 삶의 영역을 가리키기 위해 처음 도입한 용어이지만,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이론에서는 사회학적으로 합목적성이 주도하는 공적 영역 외에 개인들의 생활사를 구성하는 영역을 ‘생활세계’로 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철학적 개념화 이전에 우리들의 삶을 가능케하는 세계를 생활세계로 이해해도 무난하다. 거대한 공적 담론이 다루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영역은 실제 삶을 생생하게 살아가는 개인들의 피부에는 와 닿지 않는다. 즉 개인의 의식주가 중요한 영역, 혹은 서민들의 삶의 영역을 생활세계라 이름해도 좋을 듯하다. 그런데 이 생활세계가 오늘날 위기에 처하고 있고, 이는 지구적 차원의 삶과 개인적 차원의 삶이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훗설이나 하버마스는 자신들의 철학적 담론으로 다루어지는 영역 이외에 인간 삶의 사적 차원을 생활세계라 칭하고자 했지만, 기후변화나 팬데믹은 종래의

이러한 공적/사적 영역 구분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자초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와 생태위기 그리고 팬데믹은 공적 영역이나 사적 영역이나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범지구적 위기들은 이 ‘생활세계’가 결코 인간들의 사회적 문화적 혹은 문명적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즉 ‘생활’(Leben, life) 개념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 혹은 삶은 결코 인간만이 홀로 이루는 일이 아니다. 팬데믹은 기존 철학적 개념으로서 생활세계에 포함되지 않는 존재인 ‘바이러스’가 인간 및 동물 유기체와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기후변화는 그 자체로 유기체로 여길 수 없는 기후 시스템이 인간문명이 만들어 놓은 활동들에 반응하면서 일어나는 위기이며, 생태계 위기 또한 인간의 문명이 끼치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 비인간 동식물들과 비유기체적 존재들이 야기하는 물(物)의 행위주체성이다. 그렇게 범지구적인 위기들이 각 사람의 생활세계를 위협하며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류세 시대의 생활세계의 위기’는 이 물(物)의 행위주체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간이 물(物)의 세계와 분리되거나 독립된 것이 아니라 물(物)과 더불어 함께-삶을-만들어-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포괄해야 한다. 즉 기존의 생활세계 개념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계만을 고려하는 철학적 개념이었다면, 우리 시대 ‘생활세계’는 ‘비인간 존재들과 시스템들과 함께 얹혀 만들어가는 삶’의 개념으로 재정위되어야 한다.

이를 ‘여물’(與物) 개념으로 표현해도 좋을 것이다.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는 ‘물(物)과 함

께 살아간다’는 개념을 여물(與物)로 표현하면서, 이 물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동병상구’(同病相求)라 표현하기도 했다. 자신의 문인으로서의 삶을 동고동락했던 책상의 다리를 고쳐주면서, 책상과 자신의 관계를 ‘같은 아픔으로 서로를 구원’하는 관계로 표현한 것이다. 디지털 네트워크로 전 세계가 연결된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 우리의 삶은 이제 가상 네트워크와의 연결 없이는 구성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가상 네트워크는 ‘가상 공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상 네트워크의 구성을 가능케 하는 여러 물리적인 전자장비들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에게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스마트폰’이다. 반도체나 메모리 장비 등의 급속한 발달로 우리는 거의 2-3년 사이 새로운 기계들로 교체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전자제품 폐기물들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고 있지만, 우리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그들을 폐기하고 있다. 그렇게 폐기된 전자제품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태평양 쓰레기 섬의 성장처럼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은 그들만의 행위주체성을 발휘하여 우리 앞에 문명을 위협하는 힘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그들은 우리 생활세계 바깥의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바로 우리 인간의 생활세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人間)을 생물학적인 개체의 신체에 기반한 개념으로부터 ‘연결의 사건’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경험한다. 즉 스마트폰과 같은 사물들은 인간의 삶을 보조하는 물품이라기보다는 우리와 더불어 삶을 영위하는 일부이다. 요즘 우리는 전화번호를 거의 외우지 않는다. 기억능력이 퇴화해서가 아니라, 스마트폰과 디지털 네트워크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를 굳이 암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철학자 앤디 클라크는 “연장된 정신”(the extended mind)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여물’(與物)을 넘어 ‘여인’(與人)으로 상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즉 물(物)과 함께 머무는 차원에서 연장된 정신을 해석하는 대신, 오히려 ‘물(物)과 함께 머물며 인-간은 창발한다는 발상’으로의 전환 말이다. 말하자면 인간을 이미 생물학적 몸을 통해 주어진 사실이 아니라, 이규보처럼 ‘우리’와 더불어 머무는 존재들과 함께 동병상구(同病相求)하는 관계의 사건’으로서 보자는 말이다. 본래 인간은 ‘사람-사이’를 의미한다. 종래는 이를 사람들끼리의 ‘사이’(間)라고만 생각했지만, 이미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는 자신과 삶을 동고동락하는 존재들 즉 책상과 같은 존재를 ‘인간과 함께 머무는’ 여인(與人)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태평양 쓰레기 섬의 확장은 우리 문명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비인간 물질존재들 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물질존재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인류세의 시간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항상성’(homeostasis) 시스템으로서 결코 인간중심적이지 않다. 인간은 이 비인간 시스템 및 존재들과 더불어 ‘함께-삶을-만들어-나가는’(sympoietic) 존재이며, 이는 곧 인간이 생물학적 개체의 몸에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감각과 신체를 인터페이스로 자신의 행위주체성을 ‘연장’하며, ‘사람-사이’를 실현해 가는 존재이다. 이렇게 ‘인간됨’(being-human)의 연장능력을 ‘여인’(與人) 즉 ‘인간과 더불어 머물기’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路

장제스(蔣介石)와 일본(2)

위기의 장제스, 그의 일본 망명생활

김영신

원광대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장제스와 일본의 악연은 수십 년간 계속되었다. 70년에 걸친 장제스와 일본의 ‘애증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위기’에 처한 장제스의 일본 망명과 일본에서의 활동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위기에 처한 ‘암살범’ 장제스의 일본 망명

쑨원(孫文)은 1894년 11월 24일 하와이에서 근대중국 최초의 혁명단체인 흥중회(興中會)를 조직하였다. 이후 수년 사이에 중국 내외에서 혁명사조가 팽배하면서 자연스럽게 혁명단체들이 생겨났다. 중국 내에서 조직된 대표적인 혁명단체는 화흥회(華興會)와 광복회(光復會)였다.

1905년 8월 20일 중국혁명단체의 통일조직인 동맹회(同盟會)가 성립되었다. 화흥회 회원은 대부분 동맹회에 가입하여 이후 별도의 조직을 유지하지 않았다. 반면 상당수 광복회원은 동맹회에 가입하지 않고 여전히 독자적인 활동을 하였다. 1907년 안칭(安慶)거사 실패 후 지명수배된 광복회 간부 타오 청장(陶成章)은 일본을 거쳐 1908년 남양(南洋)으로 향하였다. 신해혁명이 폭발하자 귀국하여 혁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고, 저장성(浙江省) 임시참의회 의장에 추대되었다.

사소한 문제로 쑨원과 반목했던 타오는 중화민국 창립 후에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쑨원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혁명을 방해하는 화근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장제스는 1912년 1월 14일 새벽 2시경 타오가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 잠입해 그를 암살하였다. ‘암살범’으로 지목된 장제스는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첫 번째 망명 후 일본에서의 활동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장제스는 유학을 목표로 독일어를 공부하는 한편 군성사(軍聲社)를 창설하였다. 군성사는 월간 『군성(軍聲)』을 발행하여 혁명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자금문제로 4기를 마지막으로 폐간될 때까지 장제스는 「혁명전후군정지경영(革命戰後軍政之經營)」 등 총 5편의 글을 잡지에 발표하였다. 그중 「혁명전후군정지경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초로 ‘조선(朝鮮)’에 대해 언급하였다.

장제스가 본 ‘조선문제’

변강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한 이 글에서는 일본의 중국 침략을 3개 시기로 구분하고, 3기에 해당하는 포츠머스조약 체결 이후 일본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중국으로부터 빼앗고 동북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한 끝에 마침내



『군성(軍聲)』 발간사



일본 망명시절의 장제스(1912)

조선을 병탄하였다”고 하였다. 국제형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중국에 대한 영토 침략의 야심을 지닌 러시아와 일본의 정책을 비교한 부분이 흥미를 끈다.

장제스는 러시아의 동아시아 경영에 대해서는 야심은 있으나 이를 실천에 옮길 경영의 묘와 실제적인 힘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을 발판삼아 동북으로의 진출을 노리는 일본에 대해서는 형식보다는 실행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중국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이 훨씬 크다고 강조하였다.

장제스는 동북을 향한 일본의 왕성한 침략 기도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했으나, 중국이 충분한 준비를 갖추기 전까지는 선불리 일본과 충돌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후일 최후의 결정적인 순간까지 일본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꺼려한 이른바 ‘안내양외(安內攘外)’를 고집한 것도 이런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일본과의 전면전이 폭발하기 전까지 중국 내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꺼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독일유학의 뜻을 접고 다시 혁명전선으로

1912년 겨울, 장제스는 독일 유학을 최종 결심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귀국하였다. 출국을 준비하고 있던 1913년 3월 송자오런(宋教仁) 암살사건이 발생하였다. 쑨원은 암살사건의 배후로 대총통 위안스카이(袁世凱)를 지목하고 그를 타도하기 위한 ‘2차혁명’을 계획하였다. 쑨원은 천치메이를 통해 장제스에게 독일행을 접어두고 대기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7월 18일, 상하이(上海) 독립선언을 발표한 천치메이(陳其美)가 총사령부를 설립하자 장제스는 여기에 가담하였다. 창졸간에 거사한 토원군(討袁軍) 일부를 이끌고 상하이 병공창(兵工廠)을 공격했으나 8월 13일 최종 실패하였다.

또 다시 일본으로

‘2차혁명’이 실패하자 재차 망명길에 오른 장제스는 9월 1일 나가사키(長崎)에 도착, 9월 6일에는 도쿄(東京)에 입성하여 혁명 진영 중견에 참여하였다. 이 일로 한동안 일본과 상하이를 오갔다.

장제스에 앞서 8월 말 일본에 도착한 쑨원은 중화혁명당(中華革命黨)을 조직하였다. 장제스는 10월 29일 상하이에서 입당을 서약하였다. 그는 입당

후 도쿄로 가서 12월 중에 처음으로 쑨원과 단독 접견의 기회를 가졌다. 이후 쑨원은 그에게 수시로 각종 중요한 혁명 임무를 맡겼다.

1914년 봄, 장제스는 쑨원의 명으로 상하이에서 위안스카이 타도를 위한 군사업무를 추진하였다. 군사계획이 탐지되어 실패하는 바람에 6월 15일 대총통 명의의 수배령이 전국에 내려졌다.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천치메이를 도와 동북(東北)지역을 무대로 한 군사작전계획에 참여하였다.

장제스의 첫 번째 한국 경험

7월 8일 중화혁명당 성립대회에 참가한 뒤 쑨원의 명을 받아 중국 동북으로 향하였다. 이때 일본인으로 가장하고 하얼빈(哈爾濱)으로 향하면서 잠깐 이나마 한국 땅을 밟았다. 다롄(大連)을 경유하지 않고 한국을 거쳐 동북으로 향한 것은 보안 때문이었다.

그해 1월 천치메이가 동북에 혁명기초를 건립하기 위해 다롄에 잠입하였다가 행적이 발각되어 중도에 포기한 일이 있었다. 장제스의 동북 파견을 주도했던 천치메이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을 위해 한국을 거쳐 동북으로 잠입하도록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

비밀스러운 행동이었던지라 생애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과정과 인상에 대해 장제스는 특별한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 다만 1949년 방한했을 때 한국과의 인연을 언급하면서 이승만에게 당시의 경험을 소상히 들려주었다.

혁명기지 건설 실패와 또 한 차례의 일본행

7월 10일 하얼빈에 도착한 장제스는 각지의 실황과 혁명형세를 시찰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일 두 나라 관부(官府)의 감시와 견제 때문에 혁명운동 진행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동북에 머물고 있을 때 마침 세계대전이 폭발하자 급히 도쿄로 귀환하여 8월 2일 쑨원에게 세계대전의 추세와 위안스카이 토벌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915년 상반기에는 도쿄에 칩거하며 왕양밍(王陽明), 쑹귀판(曾國藩), 후린이(胡林翼)의 문집과 군사학 방면의 전술서를 탐독하며 때를 기다렸다. 路

종교의 위기, 종교라는 위기

한승훈

한국학중앙연구원

소멸하는 종교

많은 이들이 오늘날 종교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종교 인구의 감소다. 오늘날 세계 인류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경우를 살펴보자. 유럽의 유서 깊은 교회들이 줄어드는 신자 수에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박물관, 서점, 카페, 레스토랑, 호텔, 유치원, 나이트클럽 등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유럽 밖으로 눈을 돌려 보면 조금 다른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의 많은 지역에서는 전통적 세계관이 힘을 잃어가고, 집중적인 선교 활동이 일어나면서 20세기 이후 그리스도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났다. 여기에는 도시화와 이주의 문제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 고향을 떠나 다양한 사람들이 뒤섞여 사는 도시 환경의 노동자들에게 종교집단은 새로운 공동체를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개신교 인구 성장은 그 전형적인 예다. 한국전쟁 이후 개신교 인구 집중 지역이었던 서북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대거 남하하였고, 이후의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수많은 대형교회들이 들어섰다. 여기에는 기독교(개신교)화-서구화-근대화를 연결시키는 19세기 말 이래의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신앙이 경제적 번영과 성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대중적 믿음도 강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이미 옛날이야기가 되었다. 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한국의 개신교 인구는 정체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 가톨릭과 불교 인구 또한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으며 참여도 또한 감소하고 있다. 더욱 눈에 띄는 지표는 세대별 인구로, 대부분의 조사에서 종교인구 감소 추세는 젊은 층에서 더욱 급격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갤럽 조사의 경우, 2004년에는 한국인의 54%가 소속 종교가 있다고 답했고, 20대와 30대는 각각 45%와 49%였다. 그런데 2021년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인구에서

는 40%, 2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22%와 30%만이 종교를 믿고 있다고 답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대부분의 종교 기관은 점차 노인들로 채워지다가 소수만이 남게 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종교 인구 감소는 2030세대에서 두드러진다. 2000년대 이후 이들은 산업구조 변화로 이전 세대에 비해 안정된 직장을 얻기도, 계층이동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진 세대이기도 했다. 종교적 서비스는 공짜로 제공되지 않는다. 시간을 들여 의례에 참석하고, 물질적인 기부를 하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젊은 세대들에게 종교는 그만큼 투자를 할 가치가 없다. 시급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종교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감염증 팬데믹 상황은 종교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했다. 신자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은 교리에 대한 이해보다는 의례 참여다. 온라인 환경에서 종교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그것이 강제로 실현된 결과는 참담했다.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속에서 종교의례가 축소, 중단되자 젊은 세대의 탈종교 경향은 더욱 본격화되고, 적극적인 종교활동 주체인 노년층의 참여는 심각하게 제한되었다.

위기를 부추기는 종교

팬데믹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종교가 쓸모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에서 초기 확산이 시작된 사태가 대표적이다. 개신교계 신종교인 신천지증거장막성전은 주류 교단들에 소속되어 있는 신자들을 주된 선교대상으로 삼는 전략을 취하고 있

었다. 그리고 종교계는 물론 사회 일반의 평판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자신들의 종교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여겨졌다. 이것이 초기 감염자 정보를 은폐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사태가 장기화하자 주류 종교집단들의 반감 또한 커졌다. 종교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강해지자 특히 지대가 높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신자들의 기부에 재정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교단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한국인들 일반에게는 상대적으로 그다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백신 반대론이나 코로나-19를 둘러싼 음모론이 이들 종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데에는 이런 요인도 있었을 것이다.

재난에 대한 대응은 전근대 사회에서 종교가 공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로 여겨지곤 했다. 식자층인 성직자들의 지식, 종교공동체의 집단적 동원력, 기도가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이 가져다주는 정신적 안정과 사회 통합의 기능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재난 대응은 세속적 공공기관의 역할이 되었고, 종교기관은 거기에 순응하거나, 자기 유지를 위해 저항하는 구도가 되었다.

여타 영역에서도 종교가 사회적 위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은 존재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종교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슈들을 생각해 보자.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적 종교집단들은 반이슬람주의를 앞세운 이민자 혐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구조적 변화에 가장 강하게 저항하는 것도 이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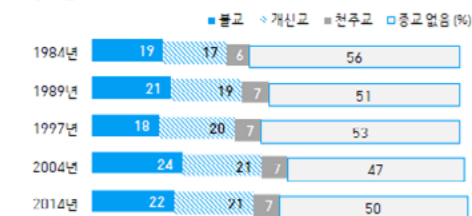
또한 종교기관의 과도한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공적인 이익에 반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기도

● 종교인 비율 1984~2021

		종교인(현재 종교 믿는 사람) 비율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	2021년
성별	전체	44%	49%	47%	54%	60%	40%
	남성	34%	40%	36%	44%	44%	34%
연령별	여성	53%	58%	58%	63%	57%	56%
	19~29세	36%	39%	36%	45%	31%	22%
	30대	45%	46%	47%	49%	38%	30%
	40대	49%	54%	53%	57%	51%	32%
	50대	53%	58%	56%	62%	60%	43%
	60대 이상				68%		59%

- 19~29세(이하 '20대')의 1984~2004년 수치는 18~24세, 25~29세 조사 결과의 평균
 - 1984~2004년의 50대는 50대 이상 의미 2014년부터 50대와 60대 이상' 별도 구분
 - 2014년의 60대는 2004년의 50대, 1984년의 20대에 해당

● 종교 분포 1984~2021



- 그 외 다른 종교: 1984년 3%, 1989년 2%, 1997~2004년 1%, 이후 1% 미만
 - 시기별 전국(제주 제외)성인 1,500~2,000명 면접조사. 한국갤럽 www.gallup.co.kr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1) 종교 현황”,
 갤럽리포트 (<https://www.gallup.co.kr/>),
 (2021. 4. 7.)



강경구 외, 『시진핑시대, 종교중국화 공정』 (신아사, 2021).
 종교 중국화 5개년 계획 및 5대 공인종교 교무조직별 계획과 관
 련된 자료들의 원문, 번역, 분석이 수록되어 있다.

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종교 갈등의 상당수
 를 차지하고 있는 성지 공간을 둘러싼 갈등도
 공공재의 사용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2000년
 대 이후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자
 본을 투여해 종교콘텐츠를 이용한 관광자원 개
 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그 정당성이나 종교
 간 편향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종교시장과 계획종교의 길

종교 인구의 감소, 그리고 종교와 공적 이익
 의 충돌은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공적 영
 역에서 종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그 기능을
 개인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으로 한정하는 세속
 화, 사사화가 있었다. 서구 근대사회의 중요한
 특징이었던 이 경향은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여
 타 지역의 ‘근대화’에도 빠르게 이식되었다. 이
 런 세속적 근대 모델에서 종교의 문화적 영향
 력은 일반적으로 약화되지만, 한편으로는 독
 립적인 행위자로서 독자적인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이 된다.

세속화는 지성사적으로도 나타났다. 브루스
 링컨(Bruce Lincoln)은 칸트의 주요 저작
 네 편에서 나타나는 지적 기획이 “무엇이 옳은
 가”라는 윤리적 물음(『실천이성비판』)과
 “무엇이 좋은가”라는 미학적 물음(『판단력
 비판』)을 종교에서 분리해, 철학적 이성의 실
 행을 통해 건전한 판단이 가능하다(『순수이
 성비판』)는 주장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하
 였다. 종교는 오직 신의 존재나 영혼의 불멸 같
 은 형이상학적 물음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이다(『이성의 한계 안에서
 의 종교』). 제임스 프레이저(James Fraz-
 er)를 비롯한 초기 인류학자들도 근대 이후의

과학적 사고가 과거의 주술적 사고 및 종교적
 사고를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현대 문화를 지배한 것은 철
 학이나 과학이 아니라 시장이었다. 그리고 자
 본주의 환경에 잘 적응한 제도종교들은 독자적
 인 사회적, 지적, 문화적 영역을 점유하는 자율
 적인 세력이 되었다. 종교 인구의 감소에도 불
 구하고, 독자적인 세계관과 신념체계를 제공
 하는 종교집단은 더욱 강력하게 결속하는 경
 향이 있다.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에
 의하면 종교라는 상품이 제공하는 보상은 신자
 에 대한 구속력이 강해지고, 세속사회 일반과
 는 질적으로 다른 공동체를 제공할 때 커진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속적 이데올로기와 구
 분되는 정체성과 세계관을 제공하는 종교집단
 의 결속력이 달갑지 않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국지적 분쟁은 서로 다른 종교적 정체성을 가
 진 민족집단이 하나의 세속국가 속에 살고 있
 을 때 일어난다. 따라서 종교정책은 많은 경우
 위기관리의 성격을 가진다. 동북아시아 국가
 들은 전반적으로 민족, 국가를 바탕으로 한 통
 일적인 세속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것이 특정한 지배종교와 결합해 있지는 않은
 다종교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상
 황을 관리하고 체제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

근대 일본은 국가신도를 ‘종교들’로부터 분
 리하여 지배이데올로기와 결합시키고 소수의
 공인종교(불교, 그리스도교, 교파신도)와 다
 수의 종교 유사 단체를 구분하는 전략을 택했
 다. 이런 모델은 식민지들에도 적용되었으나,
 냉전체제 이후 한국, 대만, 일본 등은 미국식
 정교분리와 종교자유의 원리를 보다 적극적
 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식민지시기 이후 근대
 적 종교로 개편한 불교가 건재한 가운데 그리
 스도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한국은 통제

가 되었던 포섭이 되었던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의 주요 종교들을 가능한 한 ‘공평하게’ 대하
 는 방식으로 다종교 상황을 관리해 왔다.

한편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은 한동안 교조화
 된 세속적 이데올로기로 종교를 억제하는 정
 책을 유지했으나, 1980년대를 기점으로 변화
 가 일어났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공
 민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사회질
 서를 파괴”하거나 “국가의 교육제도를 방해”
 하는 활동, 그리고 종교단체가 “외국세력의 지
 배”를 받는 것을 “정상적인 종교활동” 이외의
 것으로 불법화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집권 이
 후에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종교가 국가시책
 에 협력하게 하는 “종교 중국화 5개년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불교, 도교, 개신교, 가
 톨릭, 이슬람교라는 한정된 공인종교를 지정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
 본과 유사하지만,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장
 악을 통해 종교들을 국가체제의 일부로 포섭하
 려 한다는 차이가 있다.

전자를 ‘종교시장’, 후자를 ‘계획종교’의 모
 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한쪽은 정교분
 리의 기초를 유지하는 가운데 제도종교 사이
 의 경쟁이 격화되는 것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한쪽은 적극적인 계획과 통제를 통해 종
 교를 체제에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종교가 가
 지고 있는 사회분열과 반체제운동의 잠재력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의 위기’가 종교시
 장 체제에서 종교라는 상품이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으며, ‘종교라는 위기’
 에 대한 경계가 계획종교 체제의 동기가 되고
 있다는 점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路

반중감정을 부추기는 중국의 한국전쟁 기억과 대중서사 방식의 문제점

한담

원광대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2020년 10월, 방탄소년단(BTS)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밴 플리트 상’을 받고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한국과 미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는 수상 소감을 남겼다. 이에 중국의 애국주의를 지지하는 네티즌은 “방탄소년단이 중국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 가는데 중국인의 감정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우리 지원군(중국군)의 희생은 왜 언급하지 않느냐?”며 불매운동을 일으켰고, 중국의 방탄소년단 팬들은 매국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우리에게 ‘6.25’,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중국에서는 다르게 불리고 다르게 기억된데에서 비롯된다.

중국에서는 한국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라고 부르고,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衛國)’ 즉, 미국에 대항하여 조선(북한)을 지키고 내 집과 나라를 지킨 ‘승리’의 전쟁으로 기억한다. 또한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났다는 역사적 사실 대신, “한반도 내전이 발발했고 이 전쟁에 미국이 개입했다”라고 서술된다. 이어서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중국 단둥(丹東)에서의 미군 폭격과 대만해협의 미군 함대 배치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러한 서사 방식은 이 전쟁이 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조국을 수호한 ‘정의의 전쟁’이었으며, 한반도는 전투의 배경일

뿐 전체적으로 ‘중미전쟁’으로 기억되게 한다. 이와 같은 중국 당국의 역사 서술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에도 동일하게 반영된다. 따라서 그런 환경에서 나고 자란 지금 중국의 10대, 20대 청년이 방탄소년단의 발언에 발끈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항미원조’ 기억은 전쟁 시기 서로 총을 겨누고 싸운 적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동북공정’ 이후 끊임없이 불거져 온 한·중 간 역사, 문화적 갈등 속에서 단 한 번도 이슈화된 적 없었다. 그 이유는 첫째,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이념의 적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변화하면서, 양국의 해묵은 적대적 기억과 양국은 현실적 이익을 위해 묻어두어야 했다. 또한 대중서사에서 이 전쟁이 마치 ‘중미전쟁’으로 그려져 한국은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¹ 둘째, 무엇보다 이 전쟁은 중국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잊혀진 전쟁’이었다. 사회주의 혁명이 퇴조되고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이 시작된 1990년대 이래, 중·미 상호의존적 경제 구조 아래 고속성장을 이룩한 중국 정부가 이 전쟁으로 촉발될 수 있는 대중들의 ‘반미’ 정서를 극도로 경계했기 때문이다.²

그런데 참전 70주년³을 맞이한 2020년 전후로, 중국에서 그동안 공공연한 금기처럼 여겨졌던 ‘항미원조’ 전쟁기억이 화려하게 귀환하면서 더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중국의 요란한 ‘항미원조’ 기념식과 냉전시기와 다름없는 전쟁관, 그리고 이에 입각하여 제작된 영화들이 한국 대중의 반중 감정에 기름을 붓게 된 것이다.

1 2021년 8월, 중국 ‘항미원조’ 참전 7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현정영화 「금강천(金剛川)」이 국내로 정식 수입되려다 논란이 된 바 있다. 우리에게 상흔을 남긴 한국전쟁을 당시 적군이었던 중국의 시각에서 그렸다는 것도 문제적이지만, 이 영화의 배경이 1953년 6월에서 7월 사이 한국군과 유엔군이 중국군을 상대로 벌인 ‘금성전투’로, 우리 군이 거의 1만 명이나 희생된 참혹한 전투였기 때문이다. 한 매체가 수입업자에게 왜 이 영화를 수입했냐고 묻자, “한국군이 등장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고 한다. 실제로 영화는 중국군과 미군만 등장하여 마치 ‘중미전쟁’처럼 그려졌다. 영화 수입 소식이 알려지자 수입 허가를 반대하는 여론이 빚발쳤고, 결국 수입사가 등급분류신청을 철회하면서 국내 유통은 사실상 취소됐다.

2 1970년대까지 왕성하게 나온 ‘항미원조’ 문예작품은 1980년대 초반 세 편의 영화를 끝으로 1990년대는 거의 중단된다. 2000년대부터 시진핑 집권기 이전까지는 ‘항미원조’가 원톱이 아닌 혁명 위인의 생애 일부 혹은 항일이나 해방전쟁 등 중국 혁명 전쟁사 중 일부 에피소드로만 다뤄졌다. 특히 2000년대 초에는 참전 50주년을 기념해 ‘항미원조’를 전격적으로 다룬 영화 「북위 38선」과 30부작 드라마 「항미원조」가 제작되었으나 끝내 방영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9.11테러를 겪은 미국을 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 이후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영되지 않고 있다.

3 1950년 10월 25일은 압록강을 건너 한국전쟁에 개입한 중국군이 연합군, 국공과의 전투에서 첫 승리를 거둔 날이다. 중국은 매년 10월 25일을 ‘항미원조’ 참전 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고 2020년에는 70해를 맞았다.

최근 중국 정부가 정치, 문화, 사회 전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항미원조’를 소환하게 된 배경에는 패권 다툼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갈등이 있다. 2018년 무역 갈등에서 시작된 불씨는 현재 정치, 외교, 군사 전 방위로 확대되고 있고, 특히 홍콩의 민주화, 대만 독립 이슈에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며 중국을 자극하면서 바야흐로 미·중 관계는 1979년 정식 수교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사태를 조심스럽게 관망하던 중국 정부도 미국과의 대립을 더는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듯, 2019년 하반기부터는 ‘대미항전 불사’의 메시지를 대대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미국과의 패권 다툼 상황에 더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대국굴기’ 자신감도 그간 잊혀진 ‘항미원조’ 기억을 소환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항미원조’는 국가 최고지도자 시진핑에 의해 2010년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전쟁”에서 2020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이정표”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즉, 이 전쟁이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 이른바 ‘중국몽’ 실현의 첫 단추로 그 국가적 의미가 격상된 것이다. 또한, 70년 전, ‘항미원조’ 정신으로 무장하여 세계 최강의 미군과 싸워 승리한 인민지원군은 국가 영웅으로 재소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최고지도자의 메시지는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 통합 역할을 해온 대중문화 콘텐츠의 제작 지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바야흐로 포스트 사회주의 시대 첫 ‘항미원조 시즌’을 맞았고, 2020년 참전 70주년을 기점으로 2년 동안 영화 7편, 드라마 2편이 제작, 공개되었다.

중국 ‘항미원조’ 서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주적인 ‘미군’을 전면 등장시켜, ‘반미’를 핵심으로 하는 대중들의 내셔널리즘의 격정을 고조시키는 데 있다. 상업영화에서도 강화된 내셔널리즘에 현대적 영상 기법으로 세련미를 더해 ‘항미원조’ 집단기억을 최대한 구현해내는 모양새다. 특히 한국에도 잘 알려진 5세대 대표 감독 천카이거(陳凱歌)와 장이머우(張藝謀)가 각각 영화 「장진호(長津湖)」 시리즈와 「저격수(狙擊手)」를 통해, 전쟁 기억을 통한 ‘애국애당’의 문화정치 대열에 참여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특히 영화 「장진호」는 중국 역대 흥행랭킹 1위인 「전랑(戰狼)2」(2017)의 기록을 깨고 애국주의 주선율 영화의 역사를 다시 쓴 바 있다.

그러나 주변국을 적대시하는 대항적 민족주의와 국가를 위한 개인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조하는 현재의 ‘항미원조’ 대중서사는 혁명 이데올로기가 빠졌을 뿐, 냉전시기와 다름없이 국가의 필요에 따라 정치적 메시지를 추출하여 대중동원에 활용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영화 『장진호』



영화 『장진호의 수문교』



영화 『저격수』

한반도 분단과 동북아 냉전 체제를 고착화시킨 한국전쟁은 ‘중미전쟁’이 아닐뿐더러, 남한과 북한만의 전쟁도 아니었다. 남한을 포함한 유엔 진영 22개국과 북한을 포함한 공산진영 3개국이 관여한 이 전쟁은 냉전 시대 최초의 열전이었고 수많은 사상자와 이산가족을 만든 비극적인 국제전이였다. 그러나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전쟁은 동아시아 공공의 무대로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각국의 상이한 기억에 갇혀 있다. 예컨대, 북한에서는 ‘조국해방전쟁’으로, 한국에서는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그리고 미국에서는 ‘잊혀진 전쟁’으로 말이다. 중국의 ‘항미원조’ 기억 또한 그 일단일 뿐이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은 잠시 미뤄졌다. 하지만 선언만큼 중요한 것은 한국전쟁과 그 기억을 적대와 동맹에서 화해와 연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다. 주요 참전국인 중국 또한 예외가 아니다. 더구나 70여 년 전과 달리, 중국은 ‘굴기’했고 미국과 어깨를 맞댄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다. 이제는 달라진 위상에 맞게, 상대방을 증오하고 ‘승리’만을 강조하는 대신, 참전한 모든 국가 병사들의 희생과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보편적 인류애와 평화의 서사로 나아가야만 한다. 중국의 ‘반전(反戰)’ 서사의 도를 고대한다. 路

근대중국에서의 과학과 현학 논쟁, 지금은?

김현주

원광대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1923년 오사신문화운동 시기 지식인들 사이에서 과학 vs. 현학 논쟁이 일어났다. 이 논쟁은 과학이 인생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인생관 논쟁”이라고도 불린다. 량치차오는 과학과 현학 논쟁을 “우주 최대의 문제”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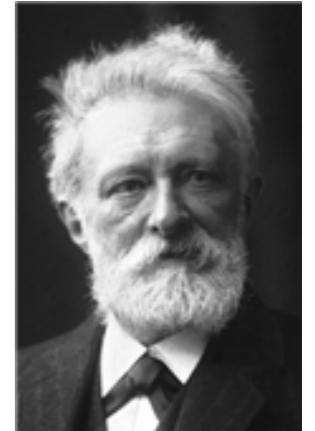
과학은 만능이 아니다!

논쟁을 일으킨 장본인은 유럽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장권마이(張君勱, 1887-1969)였다. 그는 1923년 2월 14일 칭화대학 학생들 앞에서 인생관에 대한 강연을 했다. 그는 파리강화회의에 중국대표단 고문으로 량치차오와 함께 유럽을 순회하고 돌아온 것이다. 그는 유럽을 방문했을 때 량치차오 등 대표단과 같이 귀국하지 않고 독일 철학자 루돌프 오이켄(Rudolf Christoph Eucken) 밑에서 수학하고 귀국한 터였다.

장권마이가 이 강연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오사운동 시기 대표적인 구호였던 “과학”이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과학이 인생관의 문제까지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



장권마이(출처: 바이두백과)



루돌프 오이켄(출처: 노벨상 아카이브)

그의 생각이었다. 그의 강연은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과학을 숭배하기 시작한 청년 학생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장권마이와 함께 유럽을 여행했던 덩원장(丁文江)은 친구였지만, 장권마이의 생각에 반대했다. 그는 「과학과 현학-장권마이의 “인생관”을 평하다」라는 글을 『노력주보(努力周报)』에 실어 발표했다. 그는 장권마이를 “현학귀신”이라고 주장하며, 과학만능주의를 내세웠다. 이 둘의 논쟁은 지식계를 크게 두 진영으로 갈랐다. 과학파와 현학파로 나뉘어 진행된 논쟁은 반년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양 진영은 각각 『과학과 인생관』, 『인생관논쟁』이라는 책을 출판하여 전혀 다른 입장을 보여주었다.

장권마이는 과학과 인생관이 다르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은 객관적이지만, 인생관은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과학은 논리적 방법에 의한 것이지만, 인생관은 직관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과학은 분석이 핵심이지만, 인생관은 종합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넷째, 과학은 인과율에 의해 지배되지만, 인생관은 자유의지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과학은 대상의 유사한 현상에서 비롯되지만, 인생관은 인격의 단일성에도 불구하고 그 개별적 차이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즉 인생관이라는 것이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고, 통일적 법칙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인생관에 대해 과학은 무능하다는 것이다.

과학으로 인생관도 바꿀 수 있다?

딩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지금 인생관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영원히 통일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오히려 인생관을 통일시킬 의무가 지식인들에게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는 현학자들이 없어져야 인생관이 통일될 것이라고 장권마이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후스(胡適, 1891-1962) 또한 과학파의 입장에서 인생관의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과학관을 가지고 인생관의 “최저한도의 일치”가 가능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분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생관이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인 만큼 선전과 교육을 통해서 통일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후스를 비롯한 과학파는 과학이 인간의 지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심미적 능력과 덕성까지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관도 바꿀 수 있다고 보았다.

현학파는 인생관의 문제만큼은 현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장권마이는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의 생명철학의 영향을 받아 현학을 해석했다. 그는 새로운 현학의 특징을 “인생은 자유자재이며, 기계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점, 자유의지의 발현이라는 점, 그리고 인류의 행위는 우주의 실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으로 꼽았다. 그리고 그는 중국의 현학인 송명리학의 부활을 주장했다. 그는 경험에서 출발하여 형이상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으며, 인간 심성의 발전은 형이상학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송명리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과학의 전제가 되는 것은 자유의지

현학자인 장권마이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학교에는 초자연을 다루는 과목을 두어, 학생들에게 우주의 위대함을 가르쳐서 물질적 욕망을 줄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예술과목을 두어 정신생활을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유의지의 큰 뜻을 가르치는 과목을 두어 사회개조의 용기를 북돋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것이 바로 “현학교육”이다.


장권마이의 현학교육의 핵심은 “양심” 또는 “자유의지”이다. 그것은 “정신생활”이라는 말과도 동의어이다. 현학파들은 모두 양심과 자유의지를 중시하였다. 량치차오도 “인류가 만물보다 소중한 이유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류 사회가 나날이 진보하는 것은 전부 그들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성이나 지식은 과학의 영역이지만,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양심과 자유의지이다.

과학파는 양심 또한 인과율로 해석할 수 있고, 인과율에 의해 지배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양심은 사회적 교육의 산물이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즈휘는 “측은지심”이나 “수오지심”과 같이 양심이라고 알려져 있는 덕성들이 모두 인간의 이성에 의존하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과학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양심이나 자유의지가 아니라, 바로 이성과 과학이었다.

과학파와 현학파 모두 정신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전자는 인간의 정신적 측면에서 이성을 중시한 것이고, 후자는 의지를 중시한 것으로, 그 강조점이 달랐던 것뿐이다. 이 둘의 싸움에서 어부지리는 유물론적 역사관을 주장하는 이들이 가져갔다. 지나치게 정신을 강조하던 시대의 폐단을 경험한 중국인들은 그것을 부정하는 쪽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의 선택은?

과학과 현학의 논쟁은 과학 vs. 양심, 물질 vs. 정신, 과학 vs. 도덕, 과학 vs. 철학 간의 싸움이다. 시대적 필요성은 과학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양지, 정신, 도덕, 철학은 정말 타도되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신중국 수립 후 중국의 역사가 아주 잘 보여준다. 물론 역사적 진보를 위해서 과학과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정신과 도덕이 없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없다. 오늘날에도 과학이나, 철학이나의 논쟁이 있지만, 근대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철학의 패배가 분명해 보인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잘못된 전철을 또 다시 밟아갈 수 있다는 얘기이다.

오늘날 인문학의 위기, 나아가 철학의 위기는 오늘날 과학과 현학 논쟁에서 과학이 승리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철학과의 존폐가 거론되고 있다. 철학의 위기는 최근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서양의 근대에 이미 제기된 것이다. 산업혁명과 기술문명의 발달로 인해 인간소외가 초래되면서부터의 일이다. 철학의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인 셈이다. 생존, 진보, 발달, 물질, 과학, 기술 등을 위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가?” 등 인간존재와 밀접한 문제들을 이제 외면할 것인가? 근대중국에서 일어났던 과학과 현학의 논쟁은 이렇듯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있는 질문을 던져준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1930년대 일본은 왜 군국주의와 침략으로 기울었을까

만주사변 전야의 일본

윤현명

원광대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만주사변은 1931년 9월에 일본이 만주를 침공한 사건이다. 만주사변은 일본 군국주의의 본격화, 대륙침략의 본격화라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처음 일본의 만주 주둔군 즉, 관동군은 일본 측 철도를 폭파하고 이를 중국 측에 뒤집어쓴 다음, 자체 방위를 이유로 만주를 침공했다. 처음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동군의 행동이지, 내각(일본 정부)의 방침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곧 내각과 군부는 관동군의 행동을 인정하며 군사비와 후속 병력을 보냈고, 대중도 관동군의 행동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 결과 관동군의 만주 침략은 일본 전체의 만주 침략으로 발전했다. 그 후 사태는 일본의 만주 점령과 만주국의 건국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켰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만주사변 발발 이전에 일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살펴해보도록 하

자.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국가(혹은 한 사회)가 군국주의와 침략으로 기울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만주사변 발발 전인 1920년대 일본의 대외적 위상은 국제연맹 상임이사국, 영국·프랑스·이탈리아·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강국, 미국·영국에 이은 세계 3위의 해군력 국가라고 정리할 수 있다. 또 대내적으로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민주주의 흐름 속에서, 선거권의 확대와 언론·의회의 역할 강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요컨대 1920년대의 일본은 국제사회의 지도국이며, 민주주의 흐름이 제한적이나마 진행된 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1930년대의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키며 군국주의, 침략의 길로 나아갔을까?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만주 지역의 이권을 양도받았다. 즉 요

동반도 그리고 남만주 지역의 철도 이권을 받은 것이다. 원래는 중국의 영토였는데,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조차(영토를 일정 기간 동안 빌려줌) 받은 것을 일본에 넘긴 것이다. 조차는 주권까지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기 전까지 사실상의 영토가 된다. 일본이 넘겨받은 이권은 만주의 영토 중 극히 일부에 불과했지만, 일본인들은 만주 지역의 이권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곳은 중국으로 가는 관문이었고, 그 때문에 일부에서는 대륙 ‘진출’의 발판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 정세의 변화로 그것은 쉽지 않았다. 먼저 만주의 지배권을 일본과 분점하며 협력과 견제를 이어가던 제정 러시아가 사회주의 혁명으로 무너져, 공산국가 소련으로 바뀌었다. 또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었던 중국에서는 통일의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1920년대 후반에는 손문(孫文)의 뒤를 이어 국민당을 장악한 장개석(蔣介石)의 군대가 북벌을 개시했다. 국민당의 군대는 지방의 군벌을 차례로 제압하며 점차 중국을 통일해갔다. 그러나 일본은 통일 중국의 탄생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중국이 분열되어 있어야 계속 만주의 이권을 점유하는 한편, 이를 더욱 확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에 대해 선불리 군사 개입을 할 수는 없었다. 일본 내에서 영토 확장을 반대하는 정파·정치세력은 없었지만, 국제사회(서구 열강)의 견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1922년 일본은 워싱턴회의에서 다른 열강과 아시아 태평양방면에서의 군비 제한, 중국에 대해 특정 국가가 함부로 개입하지 말 것을 합의한 바 있었다. 이것을 워싱턴 체제라고 한다. 워싱턴 체제는 열강 간의 군비 경쟁을 제한하는 것 외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서구 열강은 일본이 중국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이 중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넓게는 국제사회, 좁게는 미국·영국의 반발을 사게 되어 있었다. 더욱이 당시 일본 경제는 미국, 영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일본은 주로 미국에 생사를 수출해서 외화를 획득하는 수출주도형 국가였다. 그리고 석유·기계류의 대부분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했고, 기타 원자재는 대부분 영연방 국가로부터 수입했다. 또 금융 시스템은 영국 표준을 따르고 있었다. 당시 일본은 미



만주의 중심 도시 심양에 진입하는 일본군



사이온지 긴모치

국·영국 주도의 국제 시스템 안에 있었던 셈이다. 일본도 당분간은 이 질서에 만족했다.

가령 유력한 정치가이자 원로인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도 그런 기조를 유지했다. 1849년에 태어난 사이온지는 선배들과 함께 메이지유신을 경험했던 인사였다. 그는 일본이 서구 열강 앞에서 약소국이었던 것을 체험했고, 메이지유신이라는 일련의 정치과정에도 참가했었다. 정치가를 그만둔 뒤에도 사이온지는 원로(元老)로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대외적으로는 미국·영국과의 협조, 대내적으로는 영국식 입헌주의를 지향했다.

그런데 당시의 일본에는 워싱턴 체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도 존재했다. 가령 육군의 일부 세력은 만주, 몽골 지역으로 일본의 세력권을 확대하려고 했다. 심지어 육군 참모본부는 시베리아 출병(1918~1925)을 통해 시베리아 지역의 점령을 꾀하기까지 했다. 또 일본 내에는 대

외 강경론과 대륙 침략을 옹호하는 우익 단체도 존재했다. 더욱이 19세기 후반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일본 관료층, 지도층의 핵심이 되어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일본이 약소국이었던 적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 윗세대 비해 국가적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군인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다. 이들은 일본이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쳐 강대국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전쟁에서 잇달아 승리하며 일본이 제국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 이것은 학교의 천황제 교육과 맞물리며, 국수주의·선민사상을 부추겼다. 1920년대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에도 그러한 경향은 착실히 뿌리를 내렸다. 실제로 일본은 여러 번의 전쟁에서 이겼고, 영토를 넓혔다. 그러므로 ‘일본은 싸우면 이긴다’는 식의 사고가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시베리아 출병을 묘사한 일본 측 선전화

그 후 1929년에 미국발 세계 대공황이 발발했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주식 시장의 폭락, 은행과 기업의 부도, 농민과 자영업자의 몰락이 줄을 이었다. 일본도 커다란 타격을 입었음은 물론이다. 더욱이 방대한 영토 혹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무역 장벽을 높게 세우자, 일본은 경제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식민지와 영토가 적은 상황에서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에 생사를 수출하던 농가가 대거 몰락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곤궁한 농가에서 자기 딸을 사창가에 팔기도 했다. 세계 대공황 이후 딸을 사창가에 파는 행위가 급증하자, 이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불만은 높아갔다.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던 것이다.

오늘날처럼 이때도 문제의 핵심은 경제였다. 경제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정책을 누가 해야 하는가? 1920년대 후반, 일본에는 민정당(그 이전에는 민정당의 전신 헌정회)과 정우회라는 정당이 있었고, 위 2개 정당이 번갈아 집권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선거를 통해 유력한 정치세력이 된 위의 2개 정당은 심각한 경제문제·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당시는 세계적인 불황기였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렇다면 정치권이 과감한 정책을 통해 가계를 구제·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어야 했다. 사회민주주의적인 개혁(일종의 경제 민주화 정책)이 필요했던 셈이다. 그러나 유력한 정당인 민정당과 정우회는 그런 개혁을 추진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가계 파산하는 상황에서, 소작농 보호 정책·가계를 위한 저금리 대출 정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그럼 누가 그런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군부, 특히 육군이다.

근대 일본에서 수상은 육군과 해군에 대한 명령권이 없었다. 또 의회에서 육군과 해군의 조직을 개편할 수도 없었다. 즉, 정부와 의회에서 군사비를 조절할 수는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군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던 것이다. 한편, 군은 20세기에 들어서 정당, 정치인, 내각 등의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조직에 손을 대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했다. 그래서 정치세력이 군과 관련한 정책을 내놓으면, 정치권이 군에 간섭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성을 더욱 견고하게 했다. 군대는 바깥 세계의 인력이 유입되지 않은 곳이었고, 바깥 세계의 정책, 공권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 곳이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진 군인들이 등장했던 것이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군인, 군부가 정치에 관여한다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위험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심각한 경제 문제 그리고 이를 수반한 사회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이를 해결해주지 못하자 많은 사람들은 군부, 군인에게 기대를 걸었다. 군부와 군인이 강한 지도력을 발휘해 대내적으로는 과감한 사회·경제 개혁을, 대외적으로는 국익의 확보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리고 애국주의는 이 두 개를 포괄하는 형태로 일본 사회에 퍼져 나갔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민주주의 사조 속에서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가 경시되며 점점 약해지는 변화 말이다. 그렇게 일본은 1930년대를 맞이했다. 이것이 만주사변 전야 일본의 상황이었다. **路**

국제도시 상하이의 이야기: 상하이 도시 공간 속의 한국독립운동(4)

김주용

원광대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념식 장소 : 모이당(慕爾堂)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사실을 제국주의 일본에서도 바로 인지하였다. 그래서 제국주의 일본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가정부(假政府)라고 애써 폄훼해서 공식적으로 표기하고 그것을 당대와 후세에도 남겼다. 3.1운동의 적장자로 탄생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제국 일본의 지배와 통치를 정당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명(正名)을 훼손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는 그 존재를 한반도,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기념식 행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그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상하이 모이당(慕爾堂)이었다.

중국 상하이에 소재한 모이당(慕爾堂)은 1874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알렌(Young John Allen, 1836~1907)과 램부스(Walter Russell Lambuth, 1854~1921)가 설립했다. 1887년 미국감리회는 이곳의 명칭을 ‘중구감리회당(中區監理會堂)’이라고 하였는데 이후

존 무어(J. M. Moore; 중국명 慕爾)란 미국 신자가 대부분의 경비를 헌금하여 1890년 이름을 ‘모이당(慕爾堂, 중국발음 무얼탕)’으로 변경했다.

모이당은 상하이 한인들에게 집회공간으로 활용됐다. 1921년 6월 안창호(安昌浩)는 국민대표회의의 소집 문제가 대두되자 이곳에서 관계자들에게 연설했다. 같은 해 9월 3일에는 태평양회의외교후원회가 주최하는 강연회가 열리기도 했다. 1922년에는 흥사단 단원 김홍서의 결혼식이 이곳에서 치러졌고, 1924년 8월에는 민영인·나세웅·조상섭의 흥사단 입단식을 거행했다. 1923년 1월 30일에는 국민대표회의 정식 개막식과 서북간도·노령 등지에서 독립운동에 참가했다가 사망한 인사들을 위한 순국추도회를 거행했다.

1927년 모이당은 늘어나는 신도들을 위해 건물 서쪽에 예배당을 신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40만 원이라는 큰 비용이 필요하였다. 이에 미국 총회의 승인을 얻어 소속 교당인 삼일당의 택지를 팔아 예산을 충당하기로 했다. 삼일당은 미국 전도국이 중국 기독교인

을 위해 1879년 미국 감리교회에서 설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1921년부터는 한인들이 수리하여 한인 전용예배당이자 집회장소로 활용하고 있던 곳이었다. 이 삼일당을 팔아 35만원을 마련하였고 나머지 금액 5만 원은 신도들의 모금으로 충당하여 1931년 모이당을 완공했다. 현재 ‘목은당(沐恩堂, 하느님의 은혜를 받은 곳)’이라는 이름은 1958년 상하이지역 각 교회가 모이당에서 연합예배를 하면서 바뀌었다. 현재 목은당 곳곳에는 이곳이 모이당의 공간적 계승자임을 알 수 있는 기념물이 배치되어 있다. 상하이 중심부 시장중로(西藏中路) 316호 위치하고 있다.



현재의 모이당 전경

상하이 한인집회장소 : 삼일당(三一堂) 터

上海市 黄浦区 宁海东路 262号, 해방 전 상하이 한인들의 예배공간이자 활동공간이었던 삼일당 터의 주소이다. 1910년 일제의 강제병탄을 전후로 다수의 한인들이 중국 상하이로 이주하거나 망명했다. 이주 한인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상당수 있었고, 이들은 서양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보다 용이하게 현지에 정착할 수 있었다. 한인 기독교인들은 상하이 한인을 위한 별도의 예배당이 없었던 이유로 서양 선교사가 세운 교회나 중국기독교청년회 건물을 이용하여 종교 활동을 전개했다. 스촨루(四川路) 중국기독교청년회사무실이나 미국해군청년회관을 통해 종교 활동을 전개한 것이 그것

이었다. 상하이 한인 기독교인들은 1919년 발표된 독립선언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됐다.

3.1운동 직후 다수의 한인들이 망명해오면서 기독교인이 증가했다. 신도가 많아지자 함께 예배할 장소가 마땅치 않게 됐다. 이에 피치(Gorge Field Fitch)목사의 주선으로 베이징루(北京路) 18호에 위치한 ‘북경로 예배당’을 이용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이후에는 교민단 사무소를 예배장소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1921년에 이르러서는 기독교인이 더욱 증가하고 교회의 규모도 커짐에 따라, 집회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됐다. 이에 프랑스조계 ‘西新橋 三一里’에 위치한 삼일당(三一堂)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됐다.

삼일당은 미국 전도국(傳道局)이 중국 기독교



삼일당 터



교인을 위해 미국 감리교회에서 1879년 설립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교당의 기능을 상실하고 1917년에는 중국인 소학교로 활용됐다. 교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비용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다. 이를 해결한 인물은 상하이에 온 미국인 네이스터 박사였다. 그는 중국돈 대양 100원으로 낡은 교회시설을 수리하였다. 1921년 한인이 이곳을 교당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4월 부활절 주일부터 한인 기독교인들은 삼일당을 한인교회로 사용했다. 삼일당은 한인 전용예배당으로써 종교 활동이 가능하였고, 외부의 간섭도 받지 않고 주야간에도 늦게까지 집회나 모임을 가질 수 있었다.

종교 활동 이외에도 인성학교의 학예회·졸업식, 국치기념일·건국기원절(개천절)·‘3.1독립선언일’ 등의 기념행사, 국민대표회의 촉진회 연설회·국민대표회기성회 총회 등의 국민대표회의 관련 행사, 순국 추도식과 환영회 등의 다양한 집회장소로 활용됐다. 삼일당은 예배공간으로 사용되면서 동시에 교민사회의 수많은 집회와 행사를 통해서 민족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곳으로 활

용됐다. 상하이 한인들이 전용공간으로 종교 활동뿐 아니라 공회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였다.

1927년 본당인 모이당의 교인이 증가하면서 모이당(慕爾堂)의 신축 비용 마련을 위해 삼일당이 매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인들도 삼일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현재는 1929년 새로 건축한 건물에 일반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삼일당이 철거된 자리에 들어선 건물 외벽에는 1929년 새로 건축한 것을 기록한 흔적이 남아 있다.

독립운동가들이 잠시 영면(?)한 곳 : 정안사公墓(靜安寺公墓)

한중수교 이후 해마다 삼일절과 광복절 즈음에는 상하이 외국인 묘원에 모셔져 있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종종 소환되곤 한다. 특히 한중수교 이듬해인 1993년에 박은식, 신규식, 노백린, 안태국, 김인전 5인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되면서 그 관심의 크기는 커져 갔다.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국한 분은 신민회 사건으로 고문의 후유증을 안고 살았던 안태국 선생이다. 1920년

4월 11일 임시정부 탄생 꼭 1년만에 서거하였다. 안태국 장례는 상하이 한인사회의 사회장으로 치러졌다. 임시정부는 안태국의 장례비용의 일부인 3백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장례비용은 각계에서 들어온 부의금으로 사용하였다. 안태국의 장례 일정과 묘지 등에 대해 결정된 사항들은 『독립신문』 1920년 4월 13일자 「부고란」에 자세히 소개되었다.

- 묘지(墓地) : 상해정안사로 서양인 공동묘지
 - 발인(發引) : 明日(4월 14일) 오후 1시, 西康里 268호에서
 - 장식(葬式) : 같은 날 오후 2시 공동묘지 내 예식당에서
 - 경로 : 愷自爾路 西康里로부터 長濱路를 경유하여
- 대한민국 2년 4월 13일
友人 : 이동휘, 이동녕, 박은식, 이시영, 신규식, 손정도, 안창호, 김구

안태국의 장례 호상소는 서강리에 있는 도산 안창호의 자택이었다. 호상소 정 중앙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 독립운동가와 한인들에게 태극기는 민족 정체성의 상징이었다. 장례 당일 호상소에는 문상객들이 모여 들어 12시 정각에는 3백여 명에 달했다. 이렇듯 안태국의 장례는 300여 명의 독립운동가와 교민이 모여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그 때 묘역은 정안사공묘였다. 1956년 경 중국에서 외국인 묘역을 정리하면서 해방 이후 귀국하지 못했던 상해 ‘올드보이’ 김시문 등이 자비를 들여 지금의 만국공묘로 이장한 것이다. 아마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한국인 탐방객들은 독립운동가들의 잠시 영면했던 곳을 영원히 찾지 못했을 것이다.



현재 정안사公墓는 정안사 공원으로 바뀌었음

2020년 1월 7일 필자는 신규식 선생 묘역에 헌화했고 동행했던 답사단 모두가 박은식 등 독립운동가의 이장된 묘에 헌화했다. 제국주의 일본에게 한국독립운동을 몸으로 실천했던 분들, 그래서 그들의 삶과 죽음이 고귀하다는 것은 후대들이 잘 알고 있다. 다만 후대들이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해마

다 기념절에만 독립운동가들을 소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치열하게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쟁취하고자 했던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의 삶과 사상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후대들의 조그만 예의가 아닐까.

[동북아로 다음 호에 계속] 

지평선을 넘어가는 계절을 마주하다(1) 김제시의 봄과 여름

박성호

원광대 인문학연구소

봄, 모악산의 품에서 자라는 금산사

한 몸에 두 개의 심장을 품는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이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위대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전북 지역에는 위대한 어머니를 상징하는 모악산이 있다. 김제와 만경평야를 품고 있는 모악산의 명칭을 두고 여러 가지 설이 전해진다. 그중에서 모악산의 원래 이름이 금산이었다는 설이 흥미롭다. 『금산사지』에 따르면, ‘엄 뢰’와 ‘큰 뢰’로 불리던 모악산은 한자가 들어오면서 ‘엄 뢰’를 어머니의 뢰라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 의역해서 모악(母岳)으로 부르고 ‘큰 뢰’를 ‘큰’은 음역하고 ‘뢰’는 의역하여 금산(金山)으로 칭했다고 한다. 모악과 금산으로 불리던 때, 금산사(金山寺)가 개창하면서 금산은 사명(寺名)이 되고 모악은 산명(山名)이 된다. 결과적으로 금산사는 모악의 품에서 자라게 된 것이다.

금산사 창건에 관련한 자료가 적은 것에 비해, 창건과 관련한 설은 매우 다양하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개의 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백제 제29대 법왕 원년(599)에 금산사가 창건

되었다는 기록을 『금산사사적(金山寺事蹟)』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당시에는 금산사의 규모나 사격이 큰 사찰은 아니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송고승전(宋高僧傳)』의 『진표전(眞表傳)』에서 창건과 관련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진표가 12살에 출가하여 훗날 금산사를 창건하였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건원이 창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따스한 봄날에는 금산사로 가야 한다. 금산사로 걸어가다 보면 ‘모악산의 품에 있는 금산사 덕분에 봄이 왔구나!’라는 생각마저 들기 때문이다. 금산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미륵전(국보 제62호)이다. 금산사의 미륵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3층 불전이다. 1층의 ‘대자보전(大慈寶殿)’, 2층의 ‘용화지회(龍華之會)’, 3층의 ‘미륵전(彌勒殿)’ 현판이 웅장함을 더한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11.82m에 이르는 금동불 입상(立像)인 미륵존불을 모시기 위해 통층 구조로 되어 있다. 미륵존불 양옆에는 8.79m의 금동보살 입상인

금산사
미륵전



금동보살
입상



법화림보살(法華林菩薩)과 대묘상보살(大妙相菩薩)이 협시하고 있다.¹ 미륵존불의 시선으로 금산사를 둘러본다. 맞은편 대장전(보물 제827호)이 눈에 들어온다. 금산사 대장전에는 석가모니불 후불광배 조각이 안치해 있다. 생각해보면 미륵존불과 석

가모니불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던 셈이다. 두 시선이 만나는 중간지점에는 대적광전이 자리한다. 금산사의 중심인 대적광전은 1986년 12월 6일 화재로 전소되기 전까지 보물 476호로 지정된 건물이다. 1990년에 다시 복원된 대적광전 앞에는 금산사 육각다층석탑(金山

1 좌우에서 가까이 모심. 또는 그런 사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寺六角多層石塔, 보물 제27호)과 금산사 노주(金山寺露柱, 보물 제22호)가 좌우로 균형을 맞춘다. 대적광전 내부에서도 아미타여래, 석가모니불,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약사여래 좌상과 각 좌상 양옆에는 관음보살·대세지보살, 문수보살·보현보살, 일광보살·월광보살 입상을 배치하여 균형을 맞추고 있다.

모악산이 금산사를 품었다면, 금산사는 김제를 품는다. 주지하다시피, 미륵전의 미륵존불은 서쪽을 바라보고 대장전의 석가모니불은 동쪽을 바라본다. 대적광전의 5여래 6보살의 시선을 남쪽을 향한다. 이는 북쪽의 모악산의 품에서 자란 금산사가 김제를 따뜻한 눈길로 품어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산사에 가면 미륵존불과 석가모니불, 그리고 5여래 6보살이 바라보고 있는 곳으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 그들의 시선을 통해, 누군가를 품는다는 위대한 일이 어렵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은 따뜻한 눈길을 내어준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여름, 물의 열매가 익어가는 벽골제

김제에 정착하고 가장 먼저 간 곳이 금산사라면,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벽골제이다. 벽골제는 우리나라 최대의 고대저수지다. 벽골제의 넓은 부지를 보면, 김제가 우리나라 농경문화의 중심지였음을 가늠할 수 있다. 여름의 벽골제는 초록의 잔디 덕분에 싱그럽다. 벽골제에서는 초록의 잔디 위를 뛰어다니며 연을 날리는 아이가 많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이루는 만경과 김제는 농경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한다. ‘만경과 김제가 흥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옛말은 그 당시에 만경과 김제의 농업생산력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잘 나타낸다. 조정래의 『아리랑』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만경과 김제, 그리고 호남평야를 묘사한다.

그 끝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넓디나 넓은 들녘은 어느 누구나 기를 쓰고 걸어도 언제나 제자리에서 헛걸음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 벌판은 <징계 맹쟁 외에밋들>이라 불리는 김제·만경 평야로 곧 호남평야의 일부였다. 호남평야 안에서도 김제·만경 벌은 특히나 막히는 것 없이 탁 트여서 한반도 땅에서는 유일하게 지평선을 이루어내고 있는 곳이었다.²

“기를 쓰고 걸어도 언제나 제자리에서 헛걸음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하는 호남평야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수리시설이 필수적이다. 김제의 벽골제, 고부의 놀제, 익산의 황등제는 농경에 절대적 요소인 물의 공급을 담당한다. 3제(三堤)에서 김제의 벽골제의 역사가 가장 깊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따르면, 벽골제는 백제 비류왕 27년(330)에 시축한 수리시설이며, 제방의 길이는 3.3km, 둘레는 44km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벽골제는 전북지역 최초의 농경유적이자, 최대 규모의 저수시설로 평가받는다.

벽골제 제방 양쪽 끝에는 장생거와 경장거가 보존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벽골제에는 원래 수여거, 장생거, 중심거, 경장



벽골제 장생거 수문



벽골제 조형물 '용오름'

거, 유통거 수문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독의 한가운대를 파헤쳐 수로를 만들면서 독이 둘로 나뉘고 수문이 훼손되고 만다. 이때 훼손된 수문은 1975년 발굴조사와 1980년 복원공사를 통해 장생거와 경장거는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벽골제의 수문은 오늘날 수리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갑문구조와 동일한 방식이다. 과거에 이 수문은 김제 농부의 풍요로운 삶을 늘 마중했을 것이다.

김제하면 무엇이 떠오르느냐는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지평선 또는 벽골제라고 답한다. 그렇다면 지평선과 벽골제를 동시에 아우르는 단어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연 ‘쌀’이 아닐까 싶다. 한반도 최대의 곡창지대인 김제 벽골제 내부에는 농경과 민속 유물을 3,000여점을 전시하고 있는 농경문화박물관이 존재한다. 농경문화박물관은 농경사회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1전시실, 농경을 통한 생활민속을 살펴볼 수 있는 2전시실, 벽골제를 문화적 맥락 속에서 조망하는 3전시실, 동진수리민속박물관에서 이관하여 조성한 4전시실, 기획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농사가 천하의 큰 근본이라는 뜻으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은 천하의 큰 근본이 되는 농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 또는 포스트휴먼시대로 대변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농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농업이 우리 민족의 근간임은 틀림없다. 우리는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 발전하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路**

2 조정래, 『아리랑』 1권, 해냄, 2007, 11쪽.

사진을 통해 영국의 시선에서 본 한국전쟁

권의석

원광대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196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이 38선 전역에서 기습 남침을 감행하면서 이후 3년간 이어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국제사회와 유엔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16개 회원국에서 파견된 전투병력 34만여 명으로 유엔군을 편성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하였고, 이는 위태로웠던 전황을 뒤집고 한국이 한국전쟁 이전의 영토를 회복하고 국권을 보존하는 데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구성된 유엔군 가운데 30만 명 이상을 파병한 미국의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미국 외 15개 참전국(영국,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남아공, 에티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베르크, 네덜란드, 터키)의 한국전쟁 활약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특히 영국은 미국 다음으로 전투병력을 많이 보낸 국가로 1953년 기준 1만 4천 명의 군인이 유엔군 소속으로 싸우고 있었고, 한국전쟁 기간 동안 1천 1백 여 명의 영국 군인이 희생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영국 임페리얼 전쟁 박물관(Imperial War Museum)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전쟁 관련 사진을 살펴보면서, 영국의 한국전쟁 참전 과정과 활약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¹⁾



한국 파병을 위한 유엔군에 지원하는 호주 남성.
© IWM GOV 2854



한국 파병에 앞서 시드니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호주 병사. © IWM GOV 2857

영국의 한국전쟁 참전 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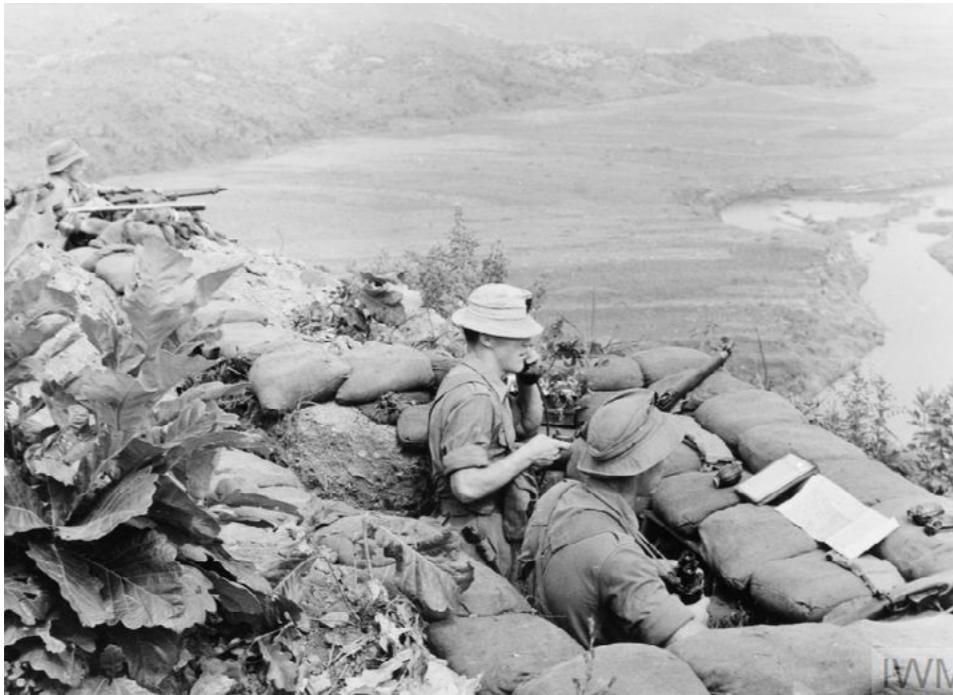
영국은 개전 직후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이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엔 차이가 있었는데, 미국은 한국전쟁이 공산진영과의 대결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영국 노동당 정부는 한국전쟁이 영국의 국익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영국은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할 경우 영국령 홍콩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였고, 월맹군과 인도차이나에서 싸우고 있던 프랑스를 도와 주겠다고 약속한 상황이었기에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무리라고 판단하였다. 이로 인해 7월 6일 노동당 내각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영국 노동당 정부는 7월 25일 이와 같은 결정을 뒤집고 한국에 전투병력을 파견하기로 하였는데, 영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경우 냉전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영국 노동당 정부의 입장을 의심할 수 있다는 영국 외무부의 반대 의견 때문이었다. 결국 참전을 결정한 영국은 다른 영연방 회원국 가운데 전투 병력을 파견하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그리고 의료지원을 한 인도와 함께 주한 영연방군(British Commonwealth Forces Korea)를 결성하고, 제1 영연방사단(The 1st Commonwealth Division)을 편성하고 트라이엄프 항공모함(HMS Triumph)이 이끄는 항모단을 파견하며 한국전쟁 내내 활약하였다.



테세우스 경항공모함에서 출격하여 북한 진남포를 폭격하는 파이어플라이 전투기. © IWM A 31868

1 영국 임페리얼 전쟁 박물관의 비영리 목적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각 사진마다 임페리얼 전쟁 박물관에 귀속된 저작권 및 고유번호 표기를 하였다.



경계 중인 스코틀랜드 국경수비대 (King's Own Scottish Borderers). © IWM KOR 607



미들섹스 대대 (Middlesex Regiment) 소속 존 러드 (John Rudd) 이병과 그의 강아지. © IWM BF 492



무덤을 지나가는 미들섹스 대대 소속 병사들. © IWM BF 187

2차대전 이후 영국군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임진강 전투

이후 주한 영국군은 다양한 전투에 참여하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치열한 전투는 “설마리 전투”, “글로스터 고지 전투(The Battle of Gloucester Hill)”라고도 불리는 임진강 전투였다. 1951년 4월, 군사 개입으로 북한이 잃었던 영토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데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평더화이(彭德懷)는 서울을 점령하기 위한 대규모 공세 작전을 입안하였고, 4월 22일, 공산군은 총 30만명이 넘는 병력을 동원하여 유엔군의 임진강 방어선에 대한 공세를 시작하였다.

당시 영국군 제29연대 산하 3개 영국군 대대와 1개 벨기에군 대대는 적성, 감악산, 금굴산 등에 배치되어 임진강 방어선 가운데 19km에 이르는 지역을 지키는 상황에서 중공군 제63군을 마주하게 되었다. 병력 면에서 열세인 상황 속에서도 제29연대가 성공적으로 공세를 저지하자, 중공군은 전열을 수습한 뒤 제29연대 방어선의 좌측을 담당하던 글로스터셔 대대(The Gloucestershire Regiment)를 집중적

으로 공격하여 방어선을 돌파하려 하였다. 이에 글로스터셔 대대 역시 23일 235고지로 후퇴한 뒤, 이후 25일 새벽까지 고지를 지키며 중공군의 맹공을 버텼다. 글로스터셔 대대는 24일에 이미 A중대와 B중대는 피해가 막심하여 하나의 중대로 합쳐야 할 정도였고, 아군의 지원도 중공군의 포위로 인해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영국군은 25일 새벽까지 치열하게 저항하였다.

결국 한계에 다다르자 유엔 방어선으로 후퇴하는 데에 성공한 D중대를 제외한 글로스터셔 대대 전원이 항복하면서 235고지도 중공군에 함락되었다. 비록 패배로 끝났지만, 영국군 제29연대가 맹렬히 저항하여 당시 함께 방어선을 구축했던 한국군 제1사단과 미군 제3사단이 중공군에게 측면을 공격당해 무너지는 일을 막을 수 있었고, 나아가 유엔군이 서울 북부 외곽 지역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 중공군 저지에 기여한 점을 생각하면 영국군 제29연대와 글로스터셔 대대의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글로스터셔 대대(Gloucestershire Regiment)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 IWM BF 452



임진강 일대에서 순찰 중인 영국군 센추리온 탱크. © IWM BF 10317




글로스터셔 대대 A중대 위치에서 바라본 계곡. © IWM BF 10277



임진강 전투 5주 이후 촬영된 235 고지.
© IWM BF 10280

현재의 한국을 있게 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

1950년의 한국은 광복 이후 단독 정부를 수립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이제 막 걸음마를 댄 민주주의 국가였다. 하지만 한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전쟁이 발발하자, 2차대전 이후 유엔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세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많은 국가들이 군사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사진 속의 젊은 군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당시 한국이 세계지도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몰랐겠지만, 세계 각국에서 온 이들이 피를 흘리며 지켜낸 한국은 이후 다양한 국제원조를 받고, 세계 각국에 제품을 수출하며 경제성장을 이뤄 오늘날의 위치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의 한국이 될 수 있게 도운 국제사회의 지원과 노력을 되새기면서, 한국이 경제, 정치,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책임을 갖고 활동해 주길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을지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부활절을 맞아 전쟁 고아들에게 부활절 달걀을 나눠주는 뉴캐슬(Newcastle)함 소속 병사.
© IWM MH 32857



민간인에게 의복을 지원하는 영국군 병사들. © IWM MH 32851

NEWS

NEWS. 1

번역서 『일본은 왜 점점 더 큰 전쟁으로 나아갔을까』

이 책은 일본이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으로 패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정확히는 1931년부터 1945년까지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 책은 시간을 거꾸로 구성해서 1944년, 1945년 이야기로 시작해서 1931년의 이야기로 끝난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역사적 사건의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형식으로 집필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 가토 요코 교수는 일본 도쿄대학의 교수로서 일본근대사의 정치, 외교, 군사사 분야의 탁월한 연구자로 꼽힌다. 또 알기 쉬운 역사책을 집필해서 역사의 대중화에도 커다란 활약을 보이는 연구자로도 유명하다.



NEWS. 2

번역서 『일본의 대학이야기』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대학의 의미와 미래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보다 먼저 근대화를 성취한 이웃 일본 역시 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일본 대학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본서에 담겨 있다. 본서에는 대학이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학과가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는지, 그 배경과 의도에 대한 설명이 세세하게 나와 있다.



NEWS

HK+ 지역인문학센터 소식

인문강좌 <인문백제6> 진행

원광대학교 HK+ 지역인문학센터는 지역의 인문자산을 활용한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인문백제6>를 진행하였다. 백제의 문화유산을 설명하며 기술과 유물의 가치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마주할지 고심하는 시간이다. 이로 인해 백제문화권인 익산의 문학적 가치를 되새기고 그 예술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이다.



HK+ 지역인문학센터 소식

인문강좌 <함성인문학 On Air 시즌 1·2·3> 진행

원광대학교 HK+ 지역인문학센터는 전주MBC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에 인문자산을 확산하기 위하여 <함성인문학 On Air>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작 및 송출하고 있다. 주말 아침마다 전주MBC 표준FM 라디오 '김차동의 FM모닝쇼'를 통해 전라북도 전역에 송출되고 있으며, 송출 후에는 유튜브 채널 '원광대HKplus함성인문학TV'를 통해 재청취가 가능하다.



HK+ 지역인문학센터 소식

인문강좌 〈인문공감놀이터〉 진행

원광대학교 HK+ 지역인문학센터는 전주MBC와의 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다이멘션연구단의 연구성과 확산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NEAD 라디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작 및 송출하고 있다. 주말 아침마다 전주MBC 표준FM 라디오 '김차동의 FM모닝쇼'를 통해 전라북도 전역에 송출되고 있으며, 송출 후에는 유튜브 채널 '원광대HKplus함성인문학TV'를 통해 재청취가 가능하다.



HK+ 지역인문학센터 소식

인문강좌 〈손으로 빛나는 인문학〉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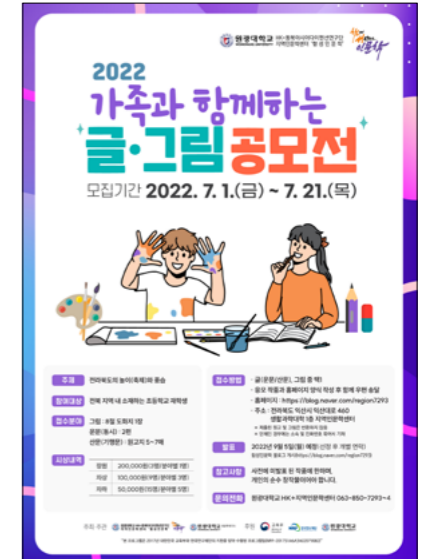
원광대학교 HK+ 지역인문학센터는 초·중등 인문소양 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손으로 빛나는 인문학>을 진행하였다. <손으로 빛나는 인문학>은 흙이라는 자연친화적 재료를 통해 개인의 작품성 및 표현력을 기르는 시간이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라쿠(RAKU) 소성을 직접 해보는 기회를 통해 도자공예 속 과학과 인문학을 경험한다.



HK+ 지역인문학센터 소식

인문강좌 〈가족과 함께하는 글·그림 공모전〉 진행

원광대학교 HK+ 지역인문학센터는 초·중등 인문소양 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글·그림 공모전>을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라북도 놀이(축제)와 풍습'을 주제로 아이들이 지역의 전통 놀이와 풍습을 직접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한 경험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 혹은 사제간 긍정적인 소통을 유발하고 나아가 전북지역의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유도한다.



HK+ 지역인문학센터 소식

인문융합 〈다독다독품앗이(다)〉 진행

원광대학교 HK+ 지역인문학센터는 초·중등 인문소양교육 및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다독다독품앗이(다)>를 진행하였다. 완주 고산중학교와 함께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음악·예술적 체험을 통한 인문학적 사유 전달로 지역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전달하고, 코로나19로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2022. 4.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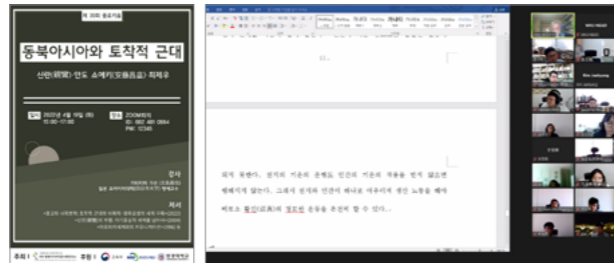
제35차 NEAD 콜로키움

동북아시아와 토착적 근대

/

강사: 기티지마 기신

일본 요카이치대학 명예교수



2022. 5. 19.

제36차 NEAD 콜로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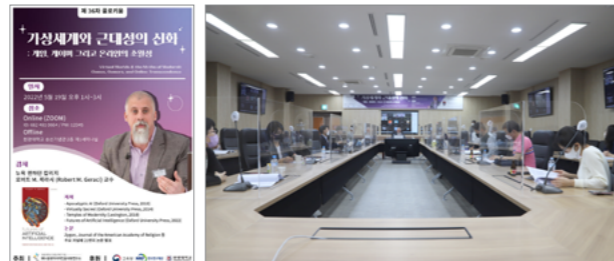
가상세계들과 근대성의 신화들

: 게임, 게이머, 온라인의 초월성

/

강사: 로버트 M. 제라시(Robert M. Geraci)

뉴욕 맨하튼 칼리지 교수



2022. 6. 16.

제37차 NEAD 콜로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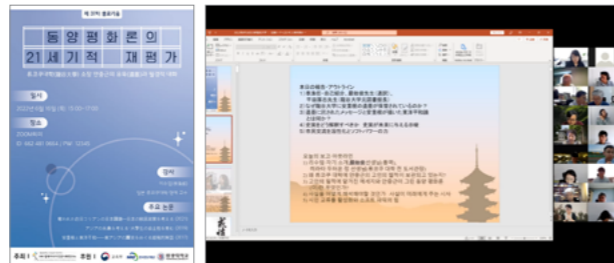
동양평화론의 21세기적 재평가

: 류코쿠대학 소장 안중근의 유묵과

월경적 대화

/

발표: 이수임 교수



2022. 7.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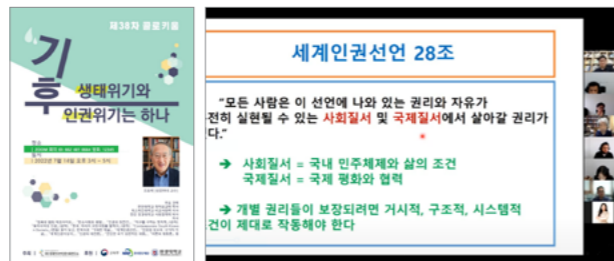
제38차 NEAD 콜로키움

기후생태위기와 인권위기는 하나

: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를 중심으로

/

발표: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2022. 7. 27

제39차 NEAD 콜로키움

포스트-팬데믹 시대 종교, 국가, 공공성 :

동북아 기후위기 속 종교의 공공성 고찰

/

제1발표: 서동은(경희대) / 논평: 조성환(원광대)

제2발표: 박일준(원광대) / 논평: 이명호(경희대)



2022. 7. 29.

제28차 NEAD 공동학술회의

동북아시아의 위기와 그 변화의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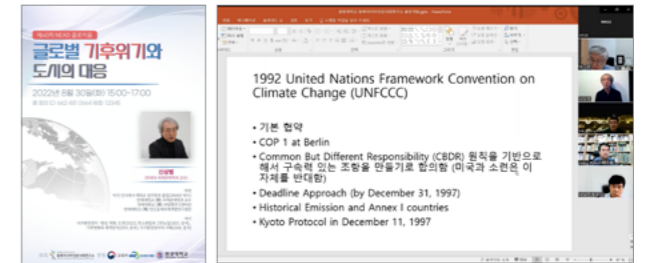
2022. 8. 30.

제40차 NEAD 콜로키움

글로벌 기후위기와 도시의 대응

/

발표: 신상범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2022. 9.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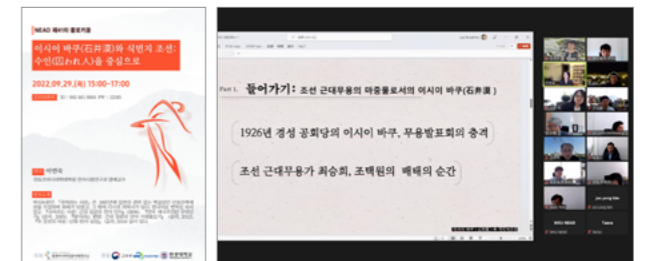
제41차 NEAD 콜로키움

이시이 바쿠(石井漢)와 식민지조선

/

발표: 이연숙 히토쓰바시대학대학원

언어사회연구과 명예교수





원광대학교 · 한중관계연구원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CENTER FOR NORTHEAST ASIAN HUMANITIES & SOCIAL SCIENCE



9 772799 521004

ISSN 2799-5216